***고***

***사***

**최 종 본**

2008.4.18 수정2

투자 : Core Contents Media (CCM)

공동제작 : Water N Tree

Core Contents Media (CCM)

1. **기숙사 내부 (밤)**

1-A. 이나방

화면 서서히 밝아오면, 화면가득 들어오는 잠든 이나의 얼굴.

이나의 침상 한 켠에 있는 고독해 보이는 프라하 모델 인형(창돌이 인형)을 따라

서서히 카메라 빠지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이나의 잠옷.

그 사이로 보이는 예쁜 꽃무늬 속옷.

문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슥삭 슥삭

(뭔가를 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연필로 쓰는 소리 같기도 한...)

창돌이 인형, 혼자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나의 얼굴에 톡 하고 떨어진다. 이나, 잠에서 깬다.

아이들 모두 잠을 자고 있고, 이나만 그 소리를 들은 듯하다.

문을 열고 나가는 이나...

1-B. 이나방 복도

텅 빈 기숙사의 복도가 매우 스산하다. 문을 때리는 바람이 매섭다.

복도의 깊이가 깊어 보이는 기숙사의 복도.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쾅하는 소리...

바람 때문에 입구의 문이 쾅~ 하고 열렸다가 닫혔다 하기를 반복한다.

얼른 가서 복도의 문을 닫고는 잠 궈 버리는 이나.

섬뜩하다... 복도의 음산한 기운에 묘한 소리가 들려오고, 무서운 이나는 점점 걸음이 빨라진다.

**insert1)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다 피가 떨어지는 수도.**

이나, 긴 복도를 걸어가는데 문이 끽~ 열리면서 교육방송 소리가 들려 나온다.

1-C. 이나방 복도 - 어느 방

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을 보는데 잠을 자는 아이들이 보인다.

잠시 후... 그때 갑자기 핏빛 서린 괴기스러운 얼굴이 이나 앞에 나타난다.

이나를 갑자기 잡아끄는 귀신. 공포에 떨며 사투를 벌이는 이나.

겨우 뿌리치고 이나, 놀라서 반대편 복도를 뛴다. 그러면 갑자기 쾅 하고 나타나는 귀신들...

거친 카메라 웍...

**insert2) 기숙사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1-D. 이나방 복도

미칠 듯 엄습해 오는 공포감으로 아무 문이나

마구 열어 보지만 기숙사의 문들이 모두 잠긴다.

점점 이나를 바짝 따라오며 조여 오는 귀신들...

1-E. 어느 방

그러다 기숙사의 문 하나가 열린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나

문을 잠그고 그곳에 기대어 울고 있다. 조용해진 복도. 이나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이나의 뒤를 엄습하는 어떤 소리.....

숨을 몰아쉬는 이나

복도 끝 문을 여는 이나 문을 열면 장소가 바뀐다.

1. **폐허 된 벌판 (낮)**

온통 폐허가 된 공간... 몇 개의 책상들이 불에 타고 있고...

타들어가는 시험지 들이 보인다. 어디선가 들리는 휘파람 소리.

그곳을 거니는 이나 눈물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버린 모습...

땅에서 삐죽 튀어나오는 손이 이나 발목을 붙잡는다.

이나 아래를 처다 보면 아무 것도 없다.

저 넘어 기둥 사이로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여자 아이를 향해 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귀신들...

이나의 시험지를 건네는 고개 숙인 여자아이.

이름 강이나라고 써있고 이나의 수학 시험지에 비 오듯 빨간펜으로

죽죽 그어져 있다. 이나의 놀라는 표정

이때, 시험지를 채점하는 팬과 사람의 몸을 긋는 모습이 교차되며 빠른 컷으로 보여 진다.

뒤에, 이나를 둘러싼 귀신들...

이나를 향해 팬으로 긋듯 칼로 이나의 온 몸을 난도질 하는 귀신들...

잠옷을 순식간에 베어내며 살갗에서 새어 나오는 선홍색 피.

목에서 조용히 나오는 피...

**(지옥 같은 시험의 이미지)**

1. **이나 방 (아침)**

곧 이나의 생리 혈이 속옷을 빨갛게 물들인다.

이나, 눈을 뜨면 카메라 서서히 빠지고 갑자기 소음처럼 들려오는 온갖 자명종 소리들....

‘ 띠리리리’ , ‘ 일어나세요 잠꾸러기’ , ‘ 따르르릉~’

브로우 플라이 자명종 시계 서 너 개가 공중을 날아다니면, 아이들 눈을 비비며 일어나

그놈을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몸을 일으키는 이나, 일층 침상에서 나오다가 침상의 모서리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친다.

이나 : 아야 ~

다른 아이들 일어나 이나를 보고 깔깔 댄다.

이나 : 뭐가 웃겨 이것들아 아파죽겠는데...

명효 : (윗 층에서 이나를 내려보며 이마를 부딪친 모습이 우스운지 웃으며...) 괜찮아? 어디 봐?

이나 : 아 ~ 괜찮아

명효 : 이구 이 덜렁아 ~ 지진 나는 줄 알았다.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이나를 보고...) 이나야 괜찮아? 왠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렸어..

이나 : 하~ 꿈꿨어 .... 하 뭐 이런 꿈을 꾸지?

왠지 찝찝한지 치마 속 팬티를 보는 이나.

이나 : 이 빨갱이들.. 하필이면 시험 마지막 날 쳐들어오고 있어. 명효야! 그거 하나만 ....

명효 : (명효, 생리대를 건네고 침대 시트를 보는데 빨갛게 물들어 있다) 웬 양이 이렇게 많아?

이나야 넌 아무래도 기저귀가 필요할 것 같다. 호호호호 (주변 아이들 다 같이 웃고)

이나 : 이게 진짜 죽을래? 이거나 도와줘

이나 침대시트를 벗겨내고 명효 내려와 침대시트 걷어 내는 것을 도와준다.

갑자기 슬슬 아파오는 배...

이나 : 아 배야 아~ 어제 라면 먹지 말걸. 명효야 이것 좀 걷어서 세면장으로 와 . (배를 만지며...) 아~

배를 움켜쥐고 세면장으로 뛰는 이나. 이나를 보고 웃는 명효. 시트를 걷는 명효.

이나의 노트를 발견한다. 윗 침상 자신의 책 위에 무심코 올려놓는다.

1. **기숙사 세면장 (오전)**

화장실 옆에 세면장이 서로 연결되어있고, 통로에는 빨래를 할 수 있는 드럼 세탁기가

배치되어있는 곳 .... 이나 화장실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나 :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아 똥.... 야 좀 빨리 나와 . 아아 !!

세면장에서 엷게 화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화장실에서도 기다리며 공부하는 아이들 모습도 보인다.

명효, 세탁기에 이나의 침대 시트를 넣고 세탁기를 돌린다.

명효 : 누가 이나 좀 도와줘라. 오늘 빨갱이 쳐들어와서 신경이 예민하시다. ㅎㅎ

이나 : (명효에게 달려들며...) 이명효.. 너 볼일 보고나서 두고 봐 죽었어....

명효 : 너 그러다 싸겠다.

이나 : 야!

시끌벅적한 아이들 의 모습이 보여 지고 화면은 서서히 암전된다. f.o

까만 화면위로 아이들 떠들고 웃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그 위를 덮어가는 음악소리 그 위로 연기처럼 날아와 자리를 잡는 타이틀.

***고***

***사***

1. **교문에서 통일로 (낮)**

화면 음악을 타고 열리면, 창인 외국어 고등학교 풍경들이 평화롭게 보여 진다.

빠른 편집과 함축적인 이미지들로 지나가는 학교 **중간고사 기간의 일상**들,

그 위로 배우들과 주요스텝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보여 진다.

수위 아저씨 학교 앞에 안내판에 붙어있는

날짜 요일 수능 카운트다운 판에 숫자를 갈아 끼우고 있다.

‘ 5월 14일 금요일 수능 앞으로 210 일’

웅장한 건물과 많은 계단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힘차고 경직 되 보이는 창인외고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동혁, 영어회화 이어폰을 끼고 들어온다.

푸릇한 가로수 나무들 사이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들이 보인다.

치영 들어오는 입구에 서서 아이들의 머리길이나 용모 상태 등을 체크한다.

동혁의 이어폰을 뺏어 들어보는 치영. 영어 회화 용 mp3라는 것을 알고 다시 줘서 보낸다.

컨디션이 영 안 좋아 보이는 치영. 연신 트름을 해댄다.

아이들 치영에게 인사하는 모양새가 영~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투다.

학교 앞으로 고급세단에서 아이들이 내리는 모습.

교문을 들어오면서도 공부하며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긴장되어 보인다.

교문 앞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학원 홍보용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줌마.

얼굴을 최대한 가리기 위해 꽁꽁 덮었다.

전단지를 받아서 아이들은 별 관심 없이 쓰레기통에 넣어 버린다.

어떤 아이가 받는듯하다 가 안 받는 장난을 치자 떨어진 전단지를 다시 줍는 아줌마.

창욱의 차가 들어온다. 수위아저씨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다.

창욱이 차를 타고 올라가면, 가볍게 인사하는 치영. 두 사람은 친한 것처럼 보인다.

치영과는 달리 창욱에게 경쾌하게 인사하는 아이들...

창욱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선생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수위 아저씨 라디오를 틀어 놓고 인사를 받다가 교장선생의

세단이 들어오자 얼른 나가 교장에게 인사를 한다.

활기찬 아침의 이모저모......

1. **3학년 4반 교실 (낮)**

3학년 4반에 써 있는 급훈.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

공부를 하는 아이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공부하는 혜영.

전체적으로 엄숙하게 공부하는 분위기의 교실. 살벌한 외고 분위기를 한층 실감나게 한다.

이나의 옆자리 재욱은 아침에 엄마랑 통화를 한다. 이나 자신의 노트를 찾는다. 노트가 없다.

그렇잖아도 신경질적인데 가뜩이나 재욱 때문에 짜증난다.

재욱 : (약간 여성스런 말투) 응 영양제 먹었어. 엄마. 응 알았어...

엄마, 오늘 몇 시에 데리러 올 꺼야?

이나 : (전화소리 듣다가 찌증난다) 전화 좀 나가서 받을래?

재욱 : (전화기에 대고...) 엄마 끊어 (이나 에게...) 남 상관 말고 니 할일이나 해

핸드폰을 걷는 주번. 재욱, 핸드폰을 바구니에 넣는다.

이나 : 여기 너 혼자만 있어? 신경 쓰이니까 나가서 전화 하라구 .

(혼잣말) 말끝마다 엄마. 엄마 ~ 남자새끼가...

재욱 : 엄마 없는 건 니 사정이지 나한테 왜 그래

이나 : (얼굴표정 변하면서...) 뭐 이 새끼야?

(일어나 손을 허리에 올려놓고...)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 번 얘기해봐.. 다시 한 번 얘기해봐 이 새끼야

이나의 깡다구 누가 말릴 자 없다. 재욱과 티격태격 싸우는 두 사람.

그녀를 말리는 주변 아이들.... 맨 앞자리 혜영이 뒤돌아보며....

혜영 : 강이나 좀 조용히 하자.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 ...

이나 : (헛웃음) 입에 금수저 물고 난 자제분들 이라고 서로 편먹는 거니 너 네들....

혜영 : 말이 좀 심하다.

이나 : 엄마 놓고 이상한 소리 해댄 건 니들이야

혜영 : 내가 언제 엄마를 걸고 넘어졌니?

이나 : 학교에서는 엘리트 행세 다 하고 다니면서 니들끼리 이상한 말 퍼트리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 어? 아무 말 안한다고 껌으로 보이냐?

혜영 : 말 좀 가려서 해라. 추하다.... 너 엄마 없는 건 사실이잖아

이나 : 이것들이 선생님들까지 벌벌 기니까 뵈는 게 없지?!

혜영 : 그거야 능력이지...

이나 : 아니지 편법이지

혜영 : 너랑 상대하는 시간이 아깝다. 선생님한테 그대로 얘기해 줄까?

이나 혜영을 독기 있게 쳐다보면...

이나 : 육성회장님 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구?

혜영 : 억울하면 넌 강현한테 일러.

이나 : 너 되게 유치하구나.

주변 아이들 두 사람을 말린다.

1. **학교 담장 (낮)**

외고 교장답게 매우 위엄 있어 보이는 교장선생.

아침 산책 겸 학교 뒤쪽에 나있는 화단을 둘러보며 화단 사이에 난 잡초를 뽑는데

갑자기 정통으로 날아오는 책가방.

정통으로 맞는 교장 선생님...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강현. 교장을 보고 깜짝 놀란다.

교장을 피해 강현 잽싸게 가방을 들고 도망쳐 교실창문을 가볍게 뛰어 넘는다.

1. **3학년 2반 교실 (낮)**

들어간 곳은 2반 교실... 대부분의 아이들 들어와 앉아있고

교실, 매우 조용하다. 일제히 강현을 쳐다보는 아이들..

강현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주며 교실을 빠져 나간다.

명효 강현을 보고 수줍은 듯, 피식 웃는다. 노트를 꺼내는데

아침에 무심코 책 위에 올려놓았던 이나의 노트가 가방 안에 있다.

공책을 펼쳐보자 너무나 잘 정리된 이나의 노트. 노트를 보는 명효.

고개를 쳐 박고 있는 조범.

주변을 눈치 보듯 바라보는 조범, 다른 아이들을 경계하는 듯....

1. **3학년 복도 (낮)**

*이 학교의 복도는 특이하게 복도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아이들이 수시로 복도에서 모니터를 통해 수학공식이나*

*영어 단어 등을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모두 등교한 복도를 가벼워 보이는 가방을 턱~ 걸친 강현.

복도에서 소영과 마주친다. 강현 인사하면 냉랭하게 고개만 끄덕이는 소영.

복도 천정에 일렬로 매달려 있는 모니터에는 교육방송이 흘러나오고...

복도에 붙어있는 모니터를 바라본다.

아래엔 ‘제 21기 육성회 기증’ 이라고 씌여 있다.

1. **복도에서 교무실 (낮)**

10-A. 교무실

선생님들의 모습들 스케치 하고, 시험지를 나르는 선생님도 눈에 띈다.

선생님들 책상에는 각종 문제집들이 쌓여있다.

핸드폰을 걷어서 들어오는 주번 학생 장난감 핸드폰을 집어내는 이치영 선생.

치영 : 야야 주번, 일루 와~ 이거 장난감 핸드폰 아니야? 다시 가져와 임마

이 녀석들 이제 별 수법을 다 쓰는 구만 ...

10-B. 교무실 복도

이치영 선생 교무실 복도 보관함에 핸드폰을 넣고 잠근다.

10-C. 교무실

치영, 선생 속이 매스꺼운지 계속 트름을 한다.

창욱의 자리에 팬더 가면을 쓴 딸아이와 찍은 사진이 보인다.

창욱 : (치영에게 머리를 누르며) 아 새끼 거 냄새난다. 임마~ 얼마나 마신거야?

치영 : 김세임 (선생님) 땜에 죽도록 마셨어요. 중간에 도망가면 어떡해요.

창욱 : 시험문제 검수하느라고 전날 날 꼬박 샜어 너무 피곤하더라고.

치영 : 선배는 시험을 무슨 예술로 보는 경향이 있어. 대충 퍼다 가 내면 되지.

창욱 : 야 임마 내신 하나에 애들 미래가 달라져... 변별력 있게 내야지 너처럼 대충 하면 되겠어?

치영 : 선배가 고민해서 안해도 우리학교 애들 다 지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

(최선생을 보고...) 어~ 최 선생님,

소영 : 네 안녕 하세요 선생님

치영 :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소영 : 그런가요?

창욱 : (치영에게) 저 샘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치영 : 어때 이쁘잖아

그때 신경질 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교감선생님.

교감 선생 불퉁불퉁 화가 나서 들어온다.

교감 : 아니 학교에 아직도 담 넘어 다니는 학생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요?

그것도 중간고사 기간에 말이야 ....

교장 선생님한테 이 나이 먹고, 불려가서 잔소리 들어야겠습니까?

그때 시험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선생들 슬슬 눈치 보다가 수업하러 슥 나간다.

더욱 약 오르는 교감 선생님.

**insert3) 전교에 시험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린다.**

1. **시험 몽타주 (낮)**

11-A. 3학년 교실에서 복도 . (시험준비)

아이들 저마다 마지막 하던 공부를 마치고

어떤 아이는 입으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 중얼거리는 아이도 보이고..

입 안에 약을 한 아름 털어 넣는 아이도 보인다.

살이 찟겨 지듯 말린 문제집 겉장이 찟겨 지고,

시험지들이 빠르고 날카롭게 탁탁 책상에 올려 진다.

시험지에 파고드는 아이들의 뒷모습.

긴장감이 감도는 학생들의 시험 보는 모습들이 스케치 된다.

11-B. 3학년 4반 교실 . (시 험)

이나 반 시험 감독을 맡고 있는 소영.

시험을 보면서 다리를 떠는 여학생. 신경이 쓰이는 재욱.

OMR 카드에 답을 하나하나 적어가는 이나.

문제에 연필로 줄을 그으며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혜영의 모습.

별 생각 없이 OMR카드에 뻑큐 문양을 그려놓은 강현.

옆에서 이를 보던 소영.

소영 : 너 지금 뭐하는 거니?

강현 : .............

소영 강현의 OMR 카드를 뺏어서 찢는다.

새 OMR카드를 주며....

소영 : 다시 풀어. 장난하지 말고...

11-C. 3학년 2반 교실 . (시 험)

시계의 분침이 어느새 45분을 알리고 선생님은 5분전임을 알린다.

창욱, 시험 감독을 하고 있다.

시험을 보는 명효의 모습 지나가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조범...

조범을 미칠 듯이 괴롭히는 어떤 소리....

신경을 안 쓰고 미친 듯 시험문제를 푸는 모습....

시험지 안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상한 얼굴....

조범, 책상에서 깜짝 놀라 넘어져 버린다.

창욱 :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조범 : 시험지가 이상해요...

시험지를 보는 창욱. 아무것도 없다.

창욱 : 너무 긴장해서 그래 .. 천천히 풀어... 자~ 일어나

11-D. 교실 과 복도. (쉬는 시간의 풍경.)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선생님들 일제히 나온다.

10분이 아까워 시험 끝나면 다음 시간에 볼 시험을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일제히 교재를 꺼내 아리 까리 했던 답을 맞춰 보며 긴장하는 아이들의 모습..

여학생 1 : 망했어 난 망했어....

여학생 2 : 오. 마이갓 정말이야? 답이 이거야??

혜영이도 저쪽에서 답안지를 맞춰 보다가 몇 개 틀렸는지 시험지를 박박 찢어 버린다.

엎드려 버리는 혜영.

혜영 하나가 틀렸다며 신경질적으로 굴자 아이들 궁시렁 댄다.

교실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는 창욱.

창욱이 걸어가고 소영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영,

받는 둥 마는 둥 쌩하니 앞질러간다.

1. **기숙사 옥상 (낮)**

기숙사 아래로 시험기간이라 일찍 하교하는 학생들의 모습 보이고, 기숙사에 오자마자

책가방도 풀지 않고, 아침에 빨았던 빨래들을 옥상에 널기 위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나와 명효.

이나와 명효, 기숙사 옥상에 빨래를 넌다. 이나의 침대시트를 너는 두 사람...

다 널고 둘이 멀리 보이는 전망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눈다.

명효 : 시험도 끝나고, 날씨도 예술이고... 일찍 끝났는데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나 : 이거나 널어.

명효 : (지지 않는 얼룩을 보고) 너 양이 많은 걸 보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나 : (한숨) 정말 오늘은 최악이다. 꿈땜에 그런가?

명효 : 무슨 꿈?

이나 : 얘기했잖아. 이상한 꿈 꿨 다구... 하~ 시험 잘 봤어?

명효 : 응 느낌이 좋아 꿈땜에 그런가?

이나 : 무슨 꿈?

명효 : (조용히) 원빈오빠랑 자는 꿈...

이나 : 빈 오빠가 미쳤냐? 너하고 자게?

명효 : 꿈인데 뭐...

이나 : 안 돼, 꿈도 허락 할 수 없어.

명효 : 막~ (애무를) 해주는데 정말 하는 거 같더라니까

이나 : (상상이 되는지...) 아~ 안돼 미친년.... 일루와

하얀 천으로 명효를 덮어 버리는 이나.

명효 : (천이 덮힌 채로) 으구 기집 애 이제 좀 웃네..

강현 : (뒤에서 나타나 두 사람 사이를 끼어든다...) 여기가 여자 기숙사 옥상이구나?

명효 : (천을 벗겨내며) 어머~ 현아

이나 :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강현 : 이 오빠가 못 가는 데가 어딨겠냐. (널려있는 브레지어 와 팬티를 보며 웃는 현...)

이나 : (빨래를 걷으며...) 사감 선생님 오기 전에 가라

강현 : 200일주 한잔 해야지. 스트레스도 풀고...

명효 : (내숭) 어 진짜 200일 밖에 안 남았구나..

이나 : (명효에게...) 뭘 또 맞장구 치고 있어...

(강현을 보며...) 꼭 공부도 안하는 것들이 더 설쳐요.

야~ 100일주는 들어 봤어도 200일주는 또 뭐냐?

강현 :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한 걸 건네며....) 중간고사도 끝났는데 클럽 놀러 와라 파티 한다.

이나 : 너나 파티 하세요. 학교를 왜 다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신없는 놈아.

너야 공부하고는 담쌓았어도 우린 등급이 틀려 물들이지 마라

강현 : 꼭 와야 돼. 니들 안 오면 내가 납치하는 수가 있다. 내가 맘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이나 : 그래봐 그랬다간 죽는 수가 있다.

(막고 서있는 강현을 쳐다보고) 비켜라

웃으며 길을 비켜주는 강현. 이나 명효 팔을 끌고 간다.

강현과 조금 멀어지면

명효 : 제발 납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나 : 지랄을 해요.. 아주~

명효 : 아 왜~ 멋있잖아.

강현, 이나가 튕길수록 매력 있다. 지긋이 웃는 강현...

F.O

1. **현관 게시판 (낮)**

F.I

게시판에 커다랗게 1등부터 꼴등까지 모두 공개하는 학교의 게시판 ..

아이들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책가방을 짊어 맨 채로 게시판에 모여든다.

혜영이 1등, 동혁이 2등, 재욱 3등, 명효 4등, 이나 5등, 미진 6등, 수진 7등

조범은 10등으로 밀렸다.

여학생 3 : 아 뭐야 진짜 이런 거 공개 안하면 안 돼? 이런 거 공개하는 학교가 어딨어 짜증나

남학생 1 : 아 시발 ~ 한 등급 또 떨어 졌어.

1등은 3학년 4반 이혜영, 혜영은 예상대로 라는 듯, 별 표정 없이 그냥 웃음 짓는다.

명효와 이나 아이들을 해 집고 나타나 성적표를 본다. 이나 실망하는 눈치.

혜영 이나를 보고 피식 웃는다. 이나 혜영을 노려보자 눈을 피하는 혜영.

명효 : 이나야? 괜찮아?

이나 : 어? 어.... 내가 뭐 천재냐? 매번 장학금 타게.

명효 : 그래도....

이나 : 걱정 하지마. 윤명효! 4등 등극을 축하한다! 딸기우유나 한잔 쏴라

명효 : 쥐포도 쏠게

이나 : 좋지

조범, 저 뒤에서 성적을 쳐다본다.

조범, 의 눈에 들어오는 1등, 민혜영의 이름이 사라지고 최지원 이란 이름으로 바뀐다.

조범, 주변을 둘러본다. 아이들이 모두 뭉게 져서 보인다.

1. **교무실 (낮)**

창욱 앉아서 수업준비를 하고, 소영도 근무를 하고 있다.

잠시 후 교감 선생 반 성적표를 들고 들어온다.

교감 : 3학년 1등 또 황선생 반이네 대단해. 어떻게 황선생은 어떤 애들을 붙여놔도 1등이네.

창욱 : 애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거죠 뭐

교감 : 최선생... 분발 해야겠어 . 3등으로 떨어졌어요.

입술을 지그시 무는 소영, 창욱과 눈이 마주친다.

얄밉다는 듯 앉아서 볼펜으로 교무수첩을 끄적여 버린다.

1. **현관 게시판 (낮)**

조범, 여전히 불안한 시선.... 이나 쪽을 보는데

이나의 뒤에서 고개 하나가 쓱 올라온다.

무섭게 생긴 여자 아이. 조범을 괴롭히는 어떤 아이의 무서운 모습.

조범, 이나의 목을 힘껏 조른다. 순간 팔에 자해의 흔적이 보인다.

남자아이 달려가 조범과 이나를 떼어 놓는다.

주변의 아이들도 두 사람을 떼어 놓는다. 양끝으로 넘어진 두 사람.

조범의 시야에서 주변 얼굴들이 모두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 끔찍하다.

아이들 조범의 이상한 행동에 모두 의아해 한다.

이나 목이 아파 기침을 하고, 조범을 쳐다보는 이나와 명효,

조범 몸을 말아 아이들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여 버린다.

조범 : (몸을 만체로...혼잣말 처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다 !

남학생2 : 야! 조범! 조용히 안 해!

명찬 : 뭐야 저 병신새끼. 시험 기간만 되면 아주 생 지랄을 해요.

겨우 3등 떨어졌다고 저 난린 거야? 미친 새끼.

한쪽에서 소근 대는 여자 아이들....

여학생 4 : 작년부터 애가 좀 이상해 왜 저래?

명효 : 다친데 없어?

이나 : 어 ~ 괜찮아...

소란스러운 현관에 곧 울리는 방송멘트

방송소리(학생) : 10분 뒤에 아침조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학생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운동장 (낮)**

학교 학생들 일제히 운동장에 모여 금요일 아침조회를 한다. (**JUMP CUT)**

사회를 보는 치영.

치영 : 조용! 조용! 선생님들께서는 속히 아이들을 정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렬한 전교생. 아이들 앞에 서있는 선생님들. 소영 3학년 2반 앞에 서고

3학년 4반 앞에 창욱이 선다.

어슬렁 어슬렁 맨 마지막에 기어 나오는 강현.

**Cut to.**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 아이들 장난치면 주의를 주는 황선생의 모습....

**Cut to.** 교장선생님 훈시

교장선생님:

사랑하는 창인 외고 여러분! 올해 우리학교는 개교 62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학교는 지난 10년간 전국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학교가 세계 앞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학교라고 자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우리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영국 이튼스쿨 학생들이 교환 연수차 우리 학교에 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특별수업으로 이튼스쿨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 특별히 서울시 교육청장께서 직접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서 이 토론수업에 참관 하신다고 합니다.

선배들의 노고와 성과가 헛되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명예를 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학교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Cut to.** 교가제창

교가제창 교가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 일제히 교가를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교가가 갑자기 트로트와 락이 결합된 묘한 버전으로 편곡되어 재미있는 가사와 함께 터져 나온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학교 만세.

Everybody listen up! yo!

나는야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

자랑스런 우리학교 얘기 좀 들어봐!

머리만 짧으면 용모단정인가. 똑같은 헤어스탈. 이젠 지겨워.

(이치영 “야 이 새끼야. 머리 꼴이 그게 뭐야” 등의 목소리가 인써트 된다)

입냄새의 극치 아~

치영, 표정이 똥 씹은 표정으로 변한다.

그 소리에 간만에 한바탕 웃는 아이들

마르고 닳도록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 ! “ 공부해 새끼야”

Everyday! 오렌지 아니죠 ! 어륀지! 어.... 어륀지!

학교 급식은 글로벌. 중국에서 온 김치, 미국 햄버거엔 닭대가리, 우리는 쪼가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길이 길이 보전하세. 예~~

창욱, 강현 쪽으로 슬슬 걸어간다.

강 현 : (이나 옆에 가서 슬쩍) 노래 어때 ?

이 나 : 너 미친 거 아니냐?

강 현 : 학교가 이런 맛도 있어야지 ...

이 나 : 너 나한테 잘 보여라 여차하면 신고해 버린다.

표정은 냉랭하지만 음악이 나쁘진 않은지 다리로 리듬을 맞추는 이나.

강현,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는다.

아이들 박장대소... 선생님들 통제하려고 하지만 안되고...

머리에 땀을 닦는 교장.

**Cut to.**

조회를 마치고 각각의 교실로 들어가는 학생들...

많은 사람들 중 강현과 이나 그리고 명효 . 뒤에서 강현을 부르는 치영.

치영 : 강현!

치영을 향해 돌아보는 강현.

치영 : (이나와 명효에게) 니들은 들어가 (뺨을 치는 치영) 또 너지?

고3이라는 새끼가 공부 안 할 거면. 조용히 다녀 이 새끼야

보자보자 하니까 이자식이 너무 하네. 그따위로 장난치고 싶어?

것도 후배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데서

간댕이가 부었어 이 새끼야?

강현 : 선생님께서는 왜 증거도 없이, 사람부터 때리세요?

치영 : 증거? (더 열 받았다) 너 증거라고 그랬냐? 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진 못할망정? 증거?

창욱 , 다가와 말린다.

창욱 : 이 선생, 흥분하지 말고, 그만 해요. 내가 알아듣게 얘기할게...

강현 이리와 봐!

창욱, 옆으로 가는 강현.

치영 : 넌 내가 담임이었으면 오늘 가만 안 놔둬...

선생님 이 녀석이 분명해요. 단단히 혼내야 돼요.

창욱 : 알았어요. 내가 교육 시킬께요.

지나가던 선생님1, 창욱과 치영에게..

선생1 : 선생님, 긴급 교무회의 한다고 교무실로 바로 오시래요...

치영 : 아 또 잔소리 꽤나 듣겠구만....

1. **교무실 (낮)**

창욱, 교무실로 들어와서 교무회의 준비를 한다.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건네는 치영.

치영 : 선배 어떻게 할 꺼야... 지금 교장실 난리 났어요.

교감선생님, 교무주임선생님 다 불려갔어. 오냐오냐 하지 마요. 좀...

어디서 그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창욱 : 왜 틀린 거 하나도 없 더 구만 노래도 좋구...

너도 이번 기회에 반성 좀 해 애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빨도 좀 닦고 다니고 임마.

소영 : 반만 1등하면 뭐해요. 학교 이미지 다 망쳐 놓는데...

창욱 :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치영 :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귀신장난 치다가 정 선생 애 떨어질 뻔 한 거 기억 안나?

정학조치를 하던 가 아니면 뒤지게 후려 패든가 따끔하게 혼내야지

그 녀석 다음엔 어떤 장난을 칠지 몰라요...

창욱 : 야 매로 다스릴 애였으면 벌써 그렇게 했어. 강현이 나쁜 애 아니야... 애를 이해하고 다스려야지

소영 : 하긴 뭐 애들 인기에 워낙 신경 쓰시니...

창욱 : (여유 있게) 내가 아이돌 인가? 결혼을 안 해서 애들 맘을 잘 모르시죠?

선생님 반이나 신경 쓰세요. 애가 스트레스 때문에 심각하던데...

치영 : 왜 그래요 들 ... 열 받는 건 난데 왜 둘이 싸우고 난리야

그때 교장 선생이 들어오자 일제히 일어나는 선생님들...

교장 : 앉아요. 금쪽같은 수업 빼서 회의 하는 거니까 간단히 전달 사항만 얘기하겠습니다.

거 이번 초청 수업에 임시 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아이들 위주로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하세요.

공부 잘하는 최 일류급 엘리트들로 구성해서 이번 주말 특별 수업을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토론주제에 적합한 사항들을 미리 뽑아 주세요. 최선생.

소영 : 네

교장 : 아이들 발음문제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대하겠습니다.

소영 : 네 ...

교장 : 기획서 누가 작성 했습니까?

창욱 : 네 제가 했습니다.

교장 : 음 (만족한다는 표정) 여기 나온 대로 진행 할 테니까 선생님이 전체 통솔을 맡아 주고..

토론 주제 내용 하고 몇 가지만 수정하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원문 자료들 좀 보내라고 했으니까 최선생하고 의논해서 진행 잘 해줘요...

창욱 : 네 ... 반 학생 중에 영어를 좀 하는 녀석이 있어서 도움을 좀 청하려고 합니다.

교장 :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하~(한숨) 오늘 아침조회는 도대체 뭡니까? 긴말 않겠어요.

장난질이나 하는 학생들 앞으로 한번만 더 적발되면 그 학생 바로 퇴학 조치하세요.

그리고 그 반 담임선생도 시말서 각오 하시고...

교장 일어나면...

소영 : 시말서 준비하셔야 겠네요 ...

1. **3학년2반 교실**

3학년 2반 수업을 준비 하는 아이들 ...

주번 두 개의 박스를 들고 들어온다.

소영, 들어온다.

연습장을 돌리는 주번...

소영 : 이번 주말까지 성적 떨어진 사람 연습장 3권씩 채워...

아이들 작은 탄성....

소영 : 니들 커서 나같이 선생이나 할래? 이 학교 나와서 연 고대 밑으로 갈 꺼야?

똑바로 들어 나는 교육문제 운운하는 작자들이 제일 싫어. 니들 요즘 대기업 취업 할려면

토익 몇 점 맞아야 되는지 알어? 공무원 시험하나 볼래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니.

이 나라 교육을 바꿀 려면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

수진 : 선생님 저희 학원도 가야돼는데...

지휘봉으로 교탁을 탁~ 치는 소영.

1. **학교 교단 (낮)**

아이들 교정에서 빠져 나가는 모습...

기숙사생들 잔뜩 짐을 들고 나가는 아이들도 보인다.

차에 엄마들이 마중 나온 풍경들도 보인다. 강현, 창욱 옆으로 선다.

창욱 : 신곡발표가 너무 요란했던 거 아니야?

강현! 마~ 대범한건 좋은데 이제 고3이잖아...

강현 : 죄송합니다. 선생님.

창욱 : 선생님이 이번엔 커버해 준다. 노래가 좋아서 봐주는 거야...

그 대신 이번 주말에 학교 나와서 선생님 좀 도와줘.

강현 : 선생님! 놀톤데... (노는 토요일 이라는 뜻)

창욱 : 그러니까 벌이지 임마 ....

강현 : 뭘 해야 하는지 는 알고....

창욱 : 나와 보면 알아. 그럼 그렇게 결정 난거다.

판사가 판결 봉 내리치듯 주먹으로 땅!땅!땅! 내려 책상을 친다.

강현 : 차라리 화장실 청소할게요. 선생님! 저 주말에 공연해야 돼는 데...

강현, 창욱 에게 애원해 보지만 소용없다.

1. **이나 방 (밤)**

머리를 움켜쥐고, 프라하 모델인형(창돌이)을 앞에 두고 공부하는 이나.

그 옆 자리에서 같이 공부하는 명효. 서로 경쟁하듯 공부하는 모습.

명효 : 아~ 내일 주말인데 다른 애들 다 집에 가고 이게 뭐야

이나 : 야 영광으로 생각해. 그래도 학교 대표로 나가는 건데.. 나는 방도 우리만 쓰니까 좋구만...

명효 : 스무 명이 참가한다고 했나? (곰곰히 생각) 이나야 오늘 클럽 가자. 사감장도 없는데

이나 : 기숙사 탈출하자고? ... 너 왜 갑자기 안하던 짓을 하고 그래

명효 : 내가 점점 널 닮아 가나봐 히~

이나 : 허~ 참.

명효 : 이나야 ...(최대한 불쌍한 표정)

이나 : 그 한심한 놈이 그렇게 좋니?

명효 : 응~

이나 : 그럼 좋다고 해~!

명효 : 못 하겠어.

이나 : 내가 대신 말해줘?

명효 : 싫어. 안 돼....

이나 : 너 혼자가!

명효 : (응석 부리듯) 야 이나야, 너는 걔랑 친하잖아 나 혼자는 못 가겠단 말이야.

이나 : 몰라 기집애야 너 혼자가!

명효 이나를 간질이며 어린 아이처럼 응석을 부린다.

1. **기숙사 탈출. 사감실 - 기숙사 개구멍 - 뒷 담장 (밤)**

21-A. 사감실. 비어있는 사감실... 몰래 빠져 나가는 이나와 명효.

21-B 기숙사 개구멍. 개구멍을 통해 나오는 두 사람

21-C 뒷 담장. 뒷 담장쪽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비추는 후레쉬.

수위 아저씨를 피해 뒷 담장을 넘는 이나 와 명효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다.

1. **강당 지하 (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강당지하의 건물을 지으려다 만 공간.

한쪽에 책상들이 쌓여있고, 바닥이 흙더미로 쌓여있는 공간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묘한 공간.

수위 아저씨, 밖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 강당 지하 쪽에 누군가가

우는 소리인지 뭔지 모를 소름끼치는 소리가 난다.

잔뜩 긴장을 하고, 후레쉬를 그곳에 비춰보는 수위 아저씨....

후레쉬를 저 안쪽으로 비추자 웅크리고 앉아서 누군가가 겁에 질려 울고 있다.

수위 : 거기 누구요?

조범 : (겁에 질려 ...) 허허허헉.....

수위 : (놀란 수위 아저씨) 뭐하는 거야? 거기서

조범이 바라보는 시점. 저 안쪽에 검은 공간속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조범은 겁에 질려 있다. 수위 그 공간을 삐집고 들어가 조범이 보는 쪽을 비춰 보면

검은 공간 안에서 후레쉬 불빛에 순간적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 아이의 얼굴이

후레쉬 불빛에 슥슥 보였다 사라진다. 조범은 그때마다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며

소리 지르고 더욱 강도 높게 자신을 자해한다.

수위 : 뭘 보고 이러는 거야 지금... 어이 학생 왜 그래~

(조범의 팔을 보는 수위 피범벅이 되어 있다)

이게 뭔 짓 이야 ... 큰 일 났네.

1. **클럽 화장실 (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이나와 명효.

얼굴에 화장을 하는 두 사람의 경쾌한 모습....

1. **클럽. 입구 - 홀 안 (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 하는데 대학교 학생증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이나와 명효.

직원 남 : 대학생 맞아요? 이거 학생증 위조 한 거 아니죠?

명효는 아무 말 못하고, 이나 얼굴색 하나 안변 하고 대꾸한다.

이 나 : 저희가 고등학생으로 보여요?

(명효에게 능청스럽게) 우리가 동안인가봐... **ㅋㅋㅋㅋ**

명효, 맞장구를 쳐주긴 하는데 어색하다.

위아래를 훑어보고 들여보내는 직원 남 들여보낸다.

아이들 모여 노래하고 춤도 추고 자유를 맘껏 즐기는 클럽.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신기하기만 한 두 사람.

대학 다니는 형들과 함께 밴드를 하는 강현의 매력적인 믹싱 실력.

나이는 어려도 그중 리더십을 발휘하는 강현. 그리고 기타를 치는 명찬.

다 같이 모여 춤도 추고 노래도 즐기고 술도 먹는 분위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놀자 신나게 놀아버리는 이나. 그리고 명효.

강현, 이나의 등장에 의외라는 듯 이나 와 명효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cut to)**

m-flo 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좋아하는 이나...

강현, 같이 호흡을 맞춰주고 명효도 신나게 흔든다. 자유를 찾은 듯 흔드는 아이들....

강현, 맥주에 사이다를 타서 명효와 이나 에게 건넨다. 별 부담 없이 시원하게 넘기는 이나

세 사람 즐거운 밤. 오랜 만에 맞는 해방감....

**(cut to)**

구석의 테이블 명효는 술이 약한지 그냥 귀퉁이에서 자고 있고, 강현과 이나 얘기를 나눈다.

강현 : 와줘서 고맙다.

이나 : 나한테 고마울 거 없어. 명효가 오자고 해서 온 거야. 그래도 뭐 생각보다 재밌네.

근데 말이야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

강현 : 뭔데?

이나 : 너 같은 꼴통이 어떻게 우리 학교를 왔냐?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냐?

강현 : 비밀인데 너니까 얘기해줄게.... 학교에 버스 3대 사주고 입학했어.

이나 : 아~ 그래? 버스 3대면 우리학교 들어올 수 있구나...

그래서 겁 대가리가 없구만... 아버지 빽 믿고....

강현 : 겁 대가리 없는 건 학교지... 너 우리학교 비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어?

우리 담임 빼고 선생들 다 좃밥 들이야....

내가 학교 다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공부만 하는 아이들에게 원동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선생들 가지고 노는 재미.

이나 : 너 또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려구

강현 : 학교가 한번 발칵 뒤집어질만한 좋은 계획이 있지...

이나 : 너도 참 한심한 청춘이다. 그래 학교 다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강현 : 또 하나는 ....... 너.

이나 : (표정이 변한다.) 새끼 어디서 수작 피우기는....

강현 : 수작이라니.... 나도 궁금한 게 있어

이나 : 뭐

강현 : 왜 이렇게 장학금에 민감해?

이나 : 너같이 있는 놈들 한 테는 별거 아니지만 난 달라 더 이상은 묻지마.

강현 이나를 지그시 쳐다본다.

이나 : 눈 풀어라. 느끼하다.

강현 이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볼을 만진다. 이나 강현을 쳐다본다.

강현, 이나의 입술에 입을 가져다 댄다.

이나 강현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현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휙 젖힌다.

강현 아아 ~ 하면 강현의 낭심을 차버리는 이나 그때 벌떡 일어나는 명효 오바이트를 한다.

명효는 웩웩 거리고 강현은 한쪽에서 뒹군다. 명효의 등을 두드리는 이나 그러다 문득...

이나 : 야 근데 좃 밥이 뭐냐?

강현 : 어? 그런 게 있어

이나 : 나중에 알려줘라 ... 야 이명효 가자

화면 서서히 암전 된다.

**f.o**

1. **학교 교정 (낮)**

텅 빈 학교의 전경. 굳게 닫혀있는 교문... 텅 빈 썰렁한 학교.

수위 아저씨 날짜와 시간 등을 바꾸는 모습.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

자매결연 학교. 이튼스쿨 초청 수업 관련된 플랭카드가 걸려있다.

1. **3학년 4반 교실 (낮)**

‘이튼스쿨 특별 수업 반’ 이라고 문에 써 있는 3학년 4반

핸드폰을 걷는 학생2. 약 20명의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

재욱 : 야 오늘은 특별수업인데 꼭 걷어야 되냐?

수진 : 악마의 입 냄새 가 걷으랬어.

그때 들어오는 황창욱. 정열해서 앉는 아이들...

창욱 : (핸드폰 걷는 애한테) 마저 걷어서 복도 사물함에 놓고 와 ...

시험 끝난 지도 얼마 안됐는데 공부하려니까 짜증나지?

그래도 최고 엘리트들 모인 자리니까 자부심을 갖도록 해

(숫자를 세어보는 창욱.) 두 명이 비네

재욱 : 혜영 이는 아직 안 왔구요. 동혁이는 똥 싸러 갔어요.

아이들 : 웃음...

창욱 : (웃음) 혜영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 있나? 이나야 너 기숙사 좀 갔다와봐

이나 : 네? 네~

이나 나가고 창욱, 범이의 자해 흔적을 보고... 범이를 한쪽으로 데려가 얘기를 나눈다...

창욱 : 조범, 너 언제부터 이랬니?

조범 : 시험 때만 되면 이상 한 게 보여요

창욱 : 뭐가 보이는데?

조범 : 여자요...무섭게 생긴...

창욱 : 근데 팔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조범 : (기분 나쁜 미소) 내가 그러는 게 아니 예요. 걔가 그러는 거지

창욱 : (심각함을 알겠다는 듯...) 그래 가서 앉아

들어가는 조범 ...

창욱 : 조금 있다가 최소영 선생님 들어오셔서 VTR수업 할 꺼니까 그동안 자습하고 있어...

1. **계단 (낮)**

교무실로 내려가는 이나. 계단에서 주인 없는 핸드폰을 발견한다.

스티커에 혜영이 사진이 붙어있고 핸드폰은 꺼져 있다.

이나, 핸드폰을 쥐고 내려간다.

1. **교무실 (낮)**

치영 : 아 진짜 나는 왜 남아야 하냐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창욱 : 넌 임마 군기반장 이잖아.

치영 : 괜히 선배가 기획서 도와 달라고 그래서 나까지 남은 거 아냐

창욱 : 짜식, 선생이 되가지고 학교 좀 오는 게 어때서 그래.... 참, 최선생님.

소영 : (대답은 안하고 고개만...)

창욱 : 조범이 말예요 혹시 부모님 만나 보셨어요?

소영 : (수업준비물을 챙기며...) 별 걸 다 신경 쓰시네요..

창욱 : 전 좀 신경이 쓰이네요.

소영, 휙 하고 나가 버린다

치영 : 그렇잖아도 전화 했는데 이번 초청수업에는 꼭 참가를 해야 한다면서

끝나면 병원에 보내겠다고 했대.

창욱 : 심각해 보이던데

치영 : 뭐, 다 지 팔자지. 부모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 아휴~ 애들 공부를 적당히 시켜야지

미치도록 시키니...원.. 그나저나 선배 이 잠바는 어디서 났어? 패션감각이 참 좋아... 보면...

창욱 : (웃으며...) 임마 너는 청결먼저 어떻게 좀 해봐

치영 : 아 나 정말 나 이빨 닦았어..

1. **기숙사. 사감실-복도-혜영방-화장실(낮) - omit**

29-A 사감실에 사감선생은 없고

29-B 기숙사 복도 복도로 가는 이나, 비어있는 기숙사의 복도가 왠지 음산하다.

꿈속의 이미지가 떠올라 기분이 오싹해지는 이나.

29-C 혜영 방 혜영 침상에 가는데 혜영은 없다.

방의 창문이 열려있고 커튼이 펄럭거린다. 음산하다.

29-D. 기숙사화장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이나 화장실로 간다.

어떤 신음 소리 같은.... 화장실 내부 잘 정돈되어 있는 공간이 음침한 공기를 가 져오는데 화장실 문에서 이상한 신음소리 같은 게 가까이 들리기 시작한다.

초조한 이나 가까이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퍽~’**하고 문이 열린다.

소영과 이나 서로 얼굴을 보며 소리를 지른다. **“ 아~ ”**

**<CUT TO>**

소영 : 수업준비물 챙기러 왔다가 깜짝 놀랐네.

이나 : 저는 선생님 신음소리 때문에 놀랐는데 히히.

소영 : 일단 수업 들어가자 나도 가던 참 이었어.

1. **3학년 4반 교실 (낮)**

교실에 들어오는 이나와 소영. 이나, 자리에 앉는다.

명효, 어제 술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매스꺼워 보인다.

소영 : 혜영이랑 동혁이 아직도 안 왔어?

재욱 : (옆에 애한테 선생님 안 들리게... ) 동혁 이는 아무래도 느끼고 있나본데 ? .. (재스츄어)

킥킥 대는 아이들.. 재수 없다는 듯 재욱을 쳐다보는 이나

소영 : 조용!. 첫 시간은 VTR 레슨을 할 껀데

영국 시사 프로그램을 볼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분 토론 같은 프로그램이야

토론 주제를 놓고 영국 사람들은 어떤 정서로 얘기를 하는지 잘 분석해서 보도록 하고

영국식 발음이라 조금 어려운 게 있을 거야 메모해 뒀다가 다 보고, 나중에 질문 해..

그날도 영어로 토론 할 거니까 집중해서 보도록....

1. **학교 화장실 (낮)**

볼일 보면서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영어 회화를 들으며 따라해 보는 동혁.

천정을 쳐다본다. 천정타일 하나가 이빨 빠지듯 빠져있다.

후~ 묘한 냉기가 흐르는 천정타일 안....

순간, 음산한 소리가 들리면서 화장실 문이 꽝! 닫힌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동혁.

화장실을 대충 마무리 하고 급히 나온다. 아무도 없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혁.

화장실 입구 문밖에서 이상한 소란스러운 학교의 소리가 울린다.

숨을 고르는 동혁. 조심스럽게 화장실문을 연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갑자기 뒤에서 밀걸레 자루와 청소도구가 무너진다. 깜짝 놀라는 동혁.

뒤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동혁,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갑자기 동혁의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꼿는 꼬챙이

동혁: 악~!!!!!!!!!!!!

**Cut to. (다른 장면들과 교차)**

화장실 아랫 문틈에서 동혁을 잡아끄는 줄. 사람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한참을 허우적대다가 피를 많이 쏟은 동혁 바닥을 긁는다. 손톱이 다 빠질 지경이다.

문 틈을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혁. 그러나 동혁 힘이 점점 빠진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동혁.

질질 끌린 핏자국....

**Cut to. (다른 장면들과 교차)**

천정의 열린 천정타일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동혁....

조용히 덮히는 천정타일.

1. **교무실 (낮)**

강현 들어온다.

치영 : 어 넌 왜왔어 임마

강현 : 담임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요.

창욱 : 어 현이 왔구나.

강현 : 예 선생님 전 뭐해야 되요?

창욱 : 너 중학교 때까지 영국에서 살았다며

강현 : 네

창욱 : 저기 서류들이 다 원문 서류들인데 니가 분리 좀 해줘라

치영 : 임마 부모님한테 잘 해 너 같은 꼴통 그래도 가르치겠다고 유학까지 같다왔으면...

강현 기분 나쁜 눈치다. 창욱 치영에게 눈치를 준다.

창욱 : 이선생...

강현, 창욱의 자리에 보이는 팬더 가면을 쓴 딸과 찍은 사진을 보고 웃는다.

1. **3학년 4반 교실 (낮)**

진지하게 보는 아이들. 이나 명효 나란히 앉아 더욱 열심히 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용 비디오 방송이 툭 끊긴다.

소영 뭐가 문제인가 하고 텔레비전 앞으로 가본다. 그러면 DVD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텔레비전의 전원도 꺼지지 않은 상태다.

TV에서 갑자기 삐-- 소리가 난다. 깜짝 놀라는 소영. 아이들 다 귀를 틀어막는다.

TV를 끄려고 하는데, 스피커에서는 이상한 노이즈가 들리고 2년 전,

수업종인 ‘엘리제를 위하여’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화면 열리면.....

수조 속에 갇혀있는 혜영이 보인다.

혜영은 카메라 아래쪽을 보며 미치도록 어떤 수학공식을 풀기 시작한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무슨 신들린 아이처럼 몸부림치는 혜영의 모습....

살려 달라고 애원한다. 그 소리가 공간속에 막혀있어 웅웅 거리는 소리다.

그 소리가 더욱 공포감을 조성한다. 바닥의 물고기들이 헐떡거리며 튀고 .....

미진 : 쟨 왜 저기 있대 ?

재욱 : 어 저기가 어디야?

그때 물 수조 에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미칠 듯 몸부림치는 혜영.

소리 지르는 아이들...

모니터를 보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아이들 잘 안 보이는지 일어나서 보고 있다. 소란스러운 아이들....

아이들 : 아

소영 : 조용! 너희들 제자리에 앉아.

황 선생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소영. 그러나 핸드폰이 꺼져있다.

전원버튼을 눌러도 핸드폰이 켜지지 않는다.

1. **교무실 복도 (낮) - omit**

복도에 붙어있는 모니터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보는 치영과 창욱. 뒤에서 모습을 쳐다보는 강현.

치영 : 누구야! 어떤 녀석이 또 장난질이야?

창욱 : 저거 혜영이 아니야? 이 선생 방송실로 가봐.

치영 : 네 선배

창욱 : 일단 애들 동요하면 안 되니까 상황보고 안 되겠으면 전원을 다 꺼버려 ....

1. **방송실 (낮) - omit**

방송실에서는 복잡하게 연결된 선이 어떻게 연결된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모든 플레이어를 보니 모두 비어있다. 연결된 선들을 보는 치영.

치영 :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선이... 이렇게 많아?

치영, 성질부리며 전원을 다 꺼버리고 모든 연결된 선을 다 뽑아버린다.

메인 모니터의 모니터는 꺼진다. 그러다 잠시 후 화면의 모니터가 다시 켜진다.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순간 섬짓해 지는 치영.

치영 : 시팔 이거 뭐야. 왜 안 꺼져...

스티커로 붙어있는 방송업체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 치영. 전화를 걸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는 치영. 핸드폰이 꺼져있다.

치영 : (범인이 생각났다는 듯이) 이 자식을 그냥~!

1. **밀실. 수조안 (낮)**

물이 차오를수록 물고기를 더 신나게 유영하고 혜영 이는 물을 토해내며 괴로 워 한다.

물고기들이 이제는 혜영의 손목과 팔목, 목 등에 먹이인줄 알고 입을 가져다 댄다.

울다가 물을 토하다, 물고기를 피하다 반복하는 혜영.

insert4) 계단. **창욱과 강현,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1. **3학년 4반 교실 (낮)**

이나 와 명효, 겁에 질려 이 모습을 보고 있고...

긴박한 상황.... 모두가 그 광경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조범 , 아예 바로 보지도 못하고 벌벌 떤 채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허우적대는 혜영의 얼굴을 보고, 화면에 하얀 물체에서 핏발 선 눈동자를 본다.

끈적대는 침을 흘리고, 헉~~하며 숨을 못 쉬는 조범. 몸이 점점 뒤틀린다.

약간 간질증상 같다.

조범 : 그 애가 오고 있어... 아~ 그 애가 그 애가 왔어

그러나 조범의 말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명찬 : (조범을 보고...) 아 저 새끼는 또 왜 지랄이야 재수 없게...

명효 : 이나야 무서워

이나 : (명효를 안으며...) 괜찮아

재욱 : 너네 사귀냐?

이나 : 쥐 새끼같은 놈

소영, 조범의 상태를 살핀다.

이나 와 그 외 아이들 멍 하니 모니터를 쳐다보기만 한다.

정적이 흐르는 교실. 무서워서 우는 아이들.....

곧 강현과 창욱 교실로 들어온다. 강현을 보고 모두 의아해 하는 아이들...

소영 : 선생님 핸드폰 되세요?

창욱 : (핸드폰을 보는데) 전원이 안 켜지는데요?

치영 들어오자마자 강현의 뺨을 후려친다.

치영, 강현의 뒷덜미를 잡자 강현, 잡은 뒷목덜미를 뿌리친다. 강현, 눈빛이 날카롭다.

치영 : 너지 너 말고는 이런 천재적인 짓을 할 새끼가 없어.

강현 : 네?! (어처구니없다는 듯...)

치영 : 이 새끼 모르는 척 하는거 봐

강현 : 증거도 없이 무조건 범인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치영 : 너 증거 라 그랬냐? 그래서 지난번 조회시간에도 뻔히 네 녀석이

해 놓고 증거 타령했어? 너 이 새끼야 전과자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강현 : 전 장난은 쳐도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치영, 강현의 뺨을 후려친다. 강현, 얼굴이 돌아가고 입에서 피가 흐른다.

창욱 : 이 선생! 진정해.

치영 :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소영 : 지금 뭐하는 거예요.

강현 :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안했습니다.

치영 :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그때 저쪽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재욱, 창욱 에게 다가간다.

재욱 : 선생님, 이나 자리에 혜영이 핸드폰이 있어요.

창욱 : (이나 쪽으로 다가가며) 강이나 너 그 핸드폰 어디서 났어...

이나 : 선생님이 기숙사 다녀오라고 하셨을 때 복도에서 주은 거예요...

재욱 : 니들 둘이 친하니까 짜고 했을 수도 있잖아.

강현 : (재욱한테 다가가며) 죽을래? 시발 놈아

창욱 : (강현의 뺨을 치며) 선생님 앞에서 무슨 짓이야

어디서 못 되 먹은 것만 배워가지고... 니들 괜한 의심 같은 거 하지 말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 까지

전부 앉아있어. (큰 소리로) 어서 이 선생 경찰에 전화 좀 해 보고, 수위 아저씨 좀 빨리 와 보라 그래..

재욱, 비릿한 표정으로 강현과 이나를 쳐다본다. 아이들 제자리에 앉는다.

창욱과 치영 교실을 나간다.

강현, 재욱에게 달려들자 이나 가로 막아선다.

이나 : 하지 마

강현 가다가 멈춘다.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날카롭게 들려오는 하울링 소리. 더 공포에 떨며 우는 명효.

잠시 후 소리가 안정을 찾고, 모니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모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끼치게 만드는 변조된 목소리다.

몸을 웅크리며 말고 있다가 모니터를 보는 조범...

공포에 떠는 조범...

1. **밀실. 수조안 (낮)**

결국 물이 차오르고, 혜영을 덮는다.

최후까지 바둥 대던 혜영, 결국 죽고 만다.

혜영은 유리 속에서 굴절된 모습을 하고 눈을 뜬 채 떠있고

물고기들이 혜영의 얼굴 주위에 몰려든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목소리.... 귀신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다.

목소리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첫 번째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명씩 죽게 됩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모였으니 잘 풀어내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 문제를 내는 곳도.... 풀어야 하는 곳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학교 밖을 나가면 나간 사람은 죽게 됩니다.

명심 하세요. 학교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럼, 잠시 후 두 번째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 **몽타주 (멘트가 나가는 동안)**

39-A. 3학년4반 모두 경직 되어 버린 아이들과 선생님의 모습들이 보이고...

39-B. 교무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해보는데 전화가 안 된다.

수위실로 뛰는 치영.

39-C 학교 곳곳의 텅 빈 사물들...

39-D 학교 교정 수위를 데리고 오는 치영의 모습. 뛰며 대사

치영 : 왜 학교 전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수위 : 그러게 말예요 전화가 안 되니까 영~ 깝깝 스럽구만 이것이 뭔 일이래~

1. **3학년4반 교실 (낮)**

모니터를 보며.... 일을 하다 왔는지 빨간 장갑을 끼고 있는 수위. 치영 수위를 불러온다.

이이들 뒤에서 우는 여학생들...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들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정신을 놓고 있다.

창욱 : 저기가 어딘 것 같아요?

수위 :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창욱 : 잘 좀 봐요. 아저씨

수위 : 이래 뵈도 수위경력 10년이 넘는데 제가 학교 안 가본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학교 밖이라면 모를까...

소영 : 저 아저씨도 핸드폰이 안 되나요?

수위 : 그러게 내 핸드폰도 안 켜지던데 밧떼리가 다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요 핸드폰이 다 안돼요?

갑자기 모니터가 툭 꺼져 버린다. 긴장감이 맴도는 교실....

재욱 : 뭐야 저거 ....

아이들 극심한 공포에 떨게 되고 갑자기 아이들 우르르 몰려 나간다.

아이들을 막아서는 창욱 과 소영 그리고 치영

수위는 이게 뭔 일인지 당황스럽다는 눈치다.

아이들 : 아~

1. **3학년4반 복도 (낮)**

핸드폰 사물함을 열려고 아우성을 치는 아이들.

치영 : 야 이놈들아 뭐하는 거야 질서 있게 행동 못해

북새통을 이루는 사물함 앞 아이들 소화기를 들어 열쇠를 때려 부순다.

조범 광적으로 변하고 반대편 복도를 쳐다본다.

조범의 눈에 들어오는 뻘겉게 충열 된 눈이 문틈에서 훅~ 하고 지나간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조범. 갑자기 미친 듯이 뛴다.

소영 : 야 너 거기 서... 거기 안서 ...

소영, 범이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아이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가지 못한다.

소영, 출구 막아서서 아이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

소영, 지휘봉으로 사물함을 때려 소리를 낸다.

그러나 아이들 아랑곳 하진 않고 아비규환 상태다.

열쇠가 땡그랑 떨어지고 사물함 안에는 핸드폰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아이들, 더욱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떤다.

아이들을 막아서는데 아이들 도통 통제가 되지 않는다.

창욱 : 이 선생 나가서 경찰에 신고 좀 해. 애들 내가 통제 할 테니까

치영 : 나가면 죽는 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가요.

창욱 : 그럼 애들 이렇게 놔 둘 꺼야?

소영 : 지금 나가다 진짜 변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구요.

창욱 : 그 말을 믿어요?

소영 : 지금 이게 장난처럼 보여요? 그럼 선생님이 나가세요.

치영 : (아우성하는 아이들에게) 니들 정말 말 안 들을래? 안 되겠어 내가 나갔다 올께요.

치영 나간다.

아이들 : 집으로 갈래요 / 보내주세요 / 무서워요.

소영 : 진짜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창욱 :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명효, 명효를 안고 있는 이나.

이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강현.

한참을 막다가 소영의 틈이 벌어지면서 학생 한명이 빠져 나가자

우르르 몰려 나간다.

창욱 : 그걸 하나 못 막고 있어요?

소영 : 그럼 남자애들이 밀어 붙이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나 나선다.

이나 : 선생님 싸우고만 계시지 말고....

화가 난 창욱과 소영 서로 째려보고 밖으로 나간다.

1. **계단 (낮)**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아이들.. 뒤따라가는 선생님들...

우르르 몰려나오는 아이들 틈에 수위 아저씨 놀란다.

창욱 : 아저씨 아이들 막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수위가 막을 재간이 없다.

1. **현관 게시판 (낮)**

건물 현관에 다다르면 맨 앞에 선두로 달리던 재욱. 제자리에 선다.

바닥에 흥건하게 보이는 핏자국 ...

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다.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시체 ...

머리가 박살난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이들

소영 그 아이를 보면, 치영이다.

아이들 도망치다가 모두 멈춰 선다.

미친 듯 소리치며 우는 아이, 기절해 버리는 친구들도 있다.

강현과 이나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나 명효를 안고 보지 못하게 한다. 명효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만다.

쓰러져 버리는 명효.

잠시 후, ‘엘리제를 위하여’ 벨소리가 전 학교에 울려 퍼진다.

“띠리리리 리리 리리리~ .....”

목소리

분명히 학교를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여자 목소리

다음 문제는 언어 듣기 능력 평가입니다.

소리) 딩동댕동!

이 문제는 한번밖에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 하세요.

여 자 : 넌 누구니?

남 자 : (울먹이며 공포에 떠는 소리로...) 저는 창인 외고 3학년 3반 김동혁 입니다.

여 자 : 니가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해?

남 자 : 살려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여 자 : (예쁜 목소리) 이제 죄를 고백 하거라. 무엇을 잘못했니?

남 자 : 살려 주세요. 정말 잘못 했어요. (뭔가에 찔린 듯...) 아 아~

이 비명소리가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아이들과 선생님들 거의 패닉 상태가 되어 버린다.

여 자 : 죄를 고백 하거라...

남 자 : 그게 ... 나쁜 짓을 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냈어요.

살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툭 끊긴다.)

소리) 띵동~

두 번째 문제,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말하는 욕심과 일치하는 중국 철학자의 어록을 학교 강당에 적으시오.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insert5)**

화면, E.C.U 으로 동혁의 끔찍한 상황을 빠르게 보여 준다.

살 속을 파고들며 박히는 쇠창살...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

동혁의 혀를 자르는 카터칼.

그리고 동혁이 비명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다.

창욱을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창욱.

창욱 : 이치영 . 이선생 . 야 임마

이런 나쁜 새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도대체 ....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을 해.

아~ 저 소리

스피커를 부셔 버리는 창욱.

그래도 학교 전역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어찌하지는 못한다.

다른 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소영 : 진정 하세요...

창욱 :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소영 : 그럼 계속 이렇게 울고만 있을 꺼예요? 문제를 풀던 동혁 이를 찾던 무슨 수를 써야할 것 아녜요.

강현 : 선생님 진정 하세요. (아이들에게) 야 니들 올라가 있어.

재욱 : 니가 뭔데 올라가라 마라야...

이나 : 그럼 여기서 뭐 할 껀데?

소영 : 그래 얼른 올라가서 차근차근 해결하자.... 선생님 얼른요.

강현 : 선생님 답을 학교 강당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강당으로 가요...

자신의 잠바를 치영의 얼굴에 덮어주는 창욱....

소영, 따라오는 수위에게...

소영 : 아저씨 전화선 좀 연결해서 외부와 연락을 해 주세요.

1. **지원 방 (현재 이나 옆옆방) (낮)**

창살 사이로 비추는 빛이 어둡게 방을 비추고,

카메라 따라가면 벽에 각종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이 도배되어있고

조범이 벽에 빼곡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책상 앞에는 온갖 약병들이 있고, 이미 다발로 먹은 흔적이 있다.

물이 아니라 이빨로 으그적 으그적 씹어 먹는 조범. 눈에 핏발이 섰다.

뭔가 수학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노트.

노트를 보면 방정식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원형 방정식 형태를 그려 나가고 있다.

그 그래프를 보며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는 조범.

이상한 소리가 방 안을 휘 감으면... 조범 뒤 돌아 보며....

조범 : 죽일 거야. 죽일 거야

1. **강당 (낮)**

재욱을 비추는 카메라,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재욱.

모두 의기소침한 상태로 앉아있는 사람들 ...

쓰러졌던 명효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린다. 옆에서 부축하고 있는 이나

창욱 치영의 죽음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

창욱 :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 선생을 죽였어

강현 :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 예요. 기운 내세요. 선생님이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소영 : 두 번째 문제 답은 뭘까? 너희들 중에 집히는 사람 없니?

수진 : 욕심에 대한 얘기를 중국 철학자들이 안 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한마디씩은 했죠.

이나 : 문제를 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될 꺼 같아요...

동혁이가 나쁜 짓을 했고, 욕심을 냈다고 했거든요?

고작 학생이 나쁜 짓을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동혁 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닐 테고... 동혁이 사연을 아는 게 중요 한 거죠.

소영 : 하~

강현 : 무슨 넌센스 같은 문제일수도 있잖아요.

소영 : 시간은 가고 미치겠다. 얼마나 남았어?

그때, 강당 위에서 쏟아지는 빔 프로젝트 의 빛줄기

스크린이 없어서 무슨 상황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또 한 번 몰아치는 긴장감.

학교의 깃발이 강당 오른편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하얀색 학교를 상징하는 깃발을 뜯어낸다.

명찬을 데리고 가 양쪽을 잡은 후 스크린에 부분부분 비춰보는 강현.

헐떡거리는 동혁의 모습이 보인다.

강현 : 보이세요?

이나와 소영, 창욱 그 모습을 보고 놀란다.

동혁의 입에 물려있는 스탑워치 29분 30초를 넘어가기 시작 한다.

20초도 남아있지 않다.

아이들 문제의 답을 생각해 보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고

소영 : 답을 풀어야 해 빨리 뭐야 도대체 답이 뭐냐구...

창욱 : 아 이렇게 무기력 할 수 있다니...

그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동혁의 모습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간다.

그리고 동혁의 시체가 서서히 움직인다. 동혁을 따라 천을 잡고 나란히 가보는 강현.

카메라의 프레임 밖으로 서서히 빠진다.

텅빈 공간....

명효 치마사이로 흘러나오는 노란 물... 오줌을 지린다.

시체를 보고 구역질을 하는 아이도 보인다.

잠시 후 강현이 있는 곳 무대 반대편에서 무엇에 끌리는지 모르지만

질질 끌려 온몸에 쇠 꼬챙이에 찔린 흔적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무대 위로 끌려 나오는 동혁의 시체. 도무지 사람이 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강현 시체가 나온 방향을 가 본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동혁의 시체아래 바퀴가 달려있다.

척추를 따라 박혀있는 바퀴.

창욱 :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떤 미친놈이... (소리가 울려 퍼진다)

소영 : 일단 애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요

이나 : (멍한 표정으로...) 어떻게 시체가 혼자 움직이지?

강현: 카메라가 이 안에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범인이 이 안에 있어요...

갑자기 미진이가 소리를 지른다.

미진 : 선생님 재욱이 없어요 재욱이 ......없어졌어요.

창욱 : 재욱이?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없어 졌어.

미진 : 모르겠어요. 갑자기 안보여요...

**이나 잠깐 생각에 잠겨 있다**

**insert6) <F.B> 중간고사 등수 발표장면 -게시판**

**어디론가 뛰기 시작하는 이나**

소영 : 이나야 어디가 얼른 와 혼자 다니지 말고...

강현 : 제가 따라 갈께요.

강현 이나의 뒤를 따라간다. 그때 창욱, 시체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동혁의 시체 쪽으로 가본다.

소영, 공포에 떠는 아이들을 안아준다.

창욱, 팬티만 입고 있는 동혁의 시체에 조각도로 새긴 글씨들을 본다.

죄 악 은 밖 에 서 오 는 것 이 아 니 라 내 부 에 있 는 것 이 다.

만 족 할 줄 모 른 다 는 것 이 가 장 큰 불 행 이 다. - 노자 -

1. **현관 게시판 (낮)**

게시판을 쳐다보는 이나 강현도 뒤에서 이나가 보는 방향을 같이 본다.

이나 뭔가 느낌이 온다. 숨이 가픈지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

강현 : 왜 그래?

이나 : 등수대로 죽고 있어.

강현 : 무슨 소리야?

이나 : (손가락으로 등수를 가리키며..)

1등 혜영이 2등 동혁이 그리고 3등, 재욱 이가 없어졌어.. 다음은 명효 차례야 그 다음은 나고....

강현 : 진짜....

이나 : 선생님한테 가자

1. **강당 (낮)**

창욱, 소영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다. 소영을 조용히 불러낸다.

저 한쪽에서 소영과 이야기를 나누는 창욱과 소영.

수진 그 소리를 몰래 듣는다.

창욱 : 시체에 답을 적어 놨어요.

소영 : 뭐라구요?

창욱 : 시체에 해답을 적고 있는 거예요

소영 : 뭐라고 써있는 데요?

창욱 : 죄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다.

만족 할 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노자 의 말 이죠.

강당 한쪽에 서넛 이 모여 있는 아이들... 수진, 아이들에게 가서 ....

수진 : 동혁이 시체에 답을 적어 놨데.

찬주 : 진짜?...

수진 : 야 있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면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기숙사로 들어가면 어때?

찬주 : 기숙사라고 안전하겠냐?

수진 : 이제 다음 사람이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

우리만 뭉쳐서 숨어 버리면, 범인이 다른 애들 잡아가겠지...

다 혼자 있다가 잡히는 거 아니야

찬주 :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모여 있으면 돼지..

수진 : 야 이 멍충아 상황 파악이 안 돼?

너 omr 카드 없이 시험 볼 수 있어? 범인은 문제와 답을 사람에다가

표현 하는 거라구.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여기 공간이 크니까 재욱이도 잡아 가잖아..

다 모여 있으면 독안에 든 쥐 밖에 더 되겠어?

왜 싸이코 영화 같은 거 보면 범인들이 이상한 메시지 같은걸 적어 놓잖아.

우리끼리만 있으면 적어도 우린 안 죽을 거 아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 하지만

찬주 : 아 이제 상황 파악이 된다. 하긴 선생님하고 같이 있다고 안전 한 것도 아닌 것 같어.

명효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다가 수진의 제안이 귀에 들어온다.

명효, 힘없는 목소리로 ...

명효 : 저기.... 나도 가면 안 될까?

창욱과 얘기하는 소영

창욱 : 안 되겠어요. 강당 뒤를 가봐야지

소영 : 그냥 있어요. 괜히 잘난 척하다 다치지 말고...

창욱 : 선생님 나한테 왜 그래요?

소영 : 애들 들어요. 조용히 얘기해요. 내가 뭘요?

창욱 : 왜 말끝마다 트집을 잡느냐구요. 말 좀 이쁘게 할 수 없어요?

소영 : 말 이쁘게 해서 잘 보일 일 있나요?

창욱 : 엄연히 내가 선생님보다 선배예요.

소영 : 선후배 무슨 상관 이죠? 실력이 중요 하지

창욱 : 애들 가르치는 게 실력만으로 되는 거예요?

소영 : 아 인격이 풍부하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창욱 : 됐어요. 그만합시다.

수진과 아이들... 선생님을 피해 강당을 몰래 빠져 나간다

1. **강당으로 이동. 학교교정 - 강당지하 (낮)**

48-A. 학교 교정

이나 와 강현 긴장하며 강당으로 이동한다. 두 사람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교가 음산하고 을씨년스럽다.

이나 : 근데 학교 밖을 나가면 진짜 죽는 걸까?

강현 : 너 무슨 생각 하는 거야...

이나 : 명효 데리고 확 나가버려..

강현 : 이 선생님 못 봤어? 괜한 생각 하지마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들려오는 어떤 소리.

그쪽으로 시선을 이동해 보면 계단을 따라 딸그락 거리며 굴러 내려오는 사이다 캔.

안도의 숨을 쉬는 이나와 강현. 강현, 이나의 손을 꼭 잡아준다.

그때 뒤로 누군가가 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 그 사실을 모른다.

48-B.강당 아래

공사 중이던 강당 아래 지하를 지나가는 두 사람...

이나 저 안쪽의 아직 쌓여있는 흙들을 쳐다본다. 안이 까맣다.

강당으로 들어가는 이나 와 강현...

1. **기숙사 개구멍 (낮)**

기숙사 개구멍을 통해 들어가는 수진 명효 외 4명.

명효, 주변을 둘러본다.

1. **기숙사 사감실에서 복도 (낮) - omit**

50-A. 사감실 사감실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

50-B. 이나방 복도 3층 철문을 닫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 아이들

1. **지원 방 (낮)**

조범, 손에 피가 흠뻑 묻은 채로 기숙사를 들어오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다.

웃음과 두려움의 눈빛을 서로 보이며 문에 귀를 기울여 본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표정이 변하는 눈이 돌아가는 조범....

1. **이나 방 (낮)**

기숙사 내부에 들어가 안도의 숨을 쉬며 누워 버리는 아이들...

수진 : 거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훨씬 좋지?

난 잠이나 자야겠다.

명효 : 남자여자 방을 따로 쓰면 안 될까? 나 옷도 좀 갈아입고 싶은데

수진 : 야 안 돼 지금은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니까... 야 남자애들 돌아있어 얘 옷 갈아입는 다잖아

명효 : 아니야 됐어 그냥 있을래....

명효 이나의 자리에 있는 이나의 창돌이 인형을 집어 들고 자기 침상으로 올라간다.

1. **이나방 복도 (낮)**

무서운 표정을 한 조범. 복도를 걸어 이나와 명효의 방 앞에 선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조범. 조범의 눈이 쾡 하다.

1. **강당 (낮)**

이나 와 강현 강당으로 들어온다. 이나 명효를 먼저 찾는다.

이나 : 명효야~ 명효야

창욱 : 너 이 녀석 위험한데 어딜 갔다 왔어?

이나 : 선생님 명효 어딨어요?

소영 : 어? 조금 전 까지 있었는데

강현 : 얘네들 어디 간 거 야

창욱 : 이러고 있지 말고 찾아봅시다.

강현 : 선생님 흩어져서 찾아보죠.

창욱 : 그래, 나는 다른 아이들 데리고 교실 쪽으로 돌아 볼 테니까

너희는 최 선생하고 교무실에서 기숙사 건물 쪽으로 이동해서 찾아봐.

이나 : 명효야 제발 ...

창욱 : 자 서두르자

소영,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만다. 창욱 강당을 나간다. 이나 강현 그리고 몇 명 아이들은 소영을 뒤따라간다.

점점 불안해 지는 이나.

1. **몽타주.**

두 팀으로 나눠서 학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모습들이 빠른 컷으로 몽타주 된다.

**insert7) 뉘엿뉘엿 지는 해**

1. **교실 복도 (해질녘)**

창욱 과 몇몇의 아이들 복도를 돌고 있다. 창욱 한참을 돌았는지 지친 듯하다.

창욱 : (가다가 지치는지 잠시 자리에 앉는다. 혼잣말) 하~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이 죄악이다.

창욱 어떤 생각.

미진 : 예? 선생님 뭐라구요?

창욱 : 아니야

명찬 : 선생님 배고파요.

1. **이나 방 (해질녘)**

아이들 모두 방에 앉아 지친 상태로 자는 아이들

남자 아이들, 자고 있는 수진의 팬티를 몰래 훔쳐본다.

키득대는 남자아이. 명효, 이층 자기 침대에 누워있다.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며...

명효 : 야 니들 뭐하는 거야

찬주 : 우리가 뭘...

남자아이들 딴청을 피운다. 명효, 침대 옆에 있는 창문을 열어본다. 창문은 쇠창으로 막혀있고,

밖은 아름답게 석양이 지고 있다. 창돌이 인형에 붉은 노을빛이 닫는다.

명효, 그때 침상위에 책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나의 노트를 발견한다. 이나의 노트를 펼쳐 보는 명효.

명효 : 미안해 이나야

닭 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명효. 계속해서 노트를 펼쳐본다.

명효의 눈물이 노트에 떨어져 볼펜의 잉크가 번진다.

노트 빈장을 열어보면 이나 엄마와 찍은 사진이 보인다.

이나의 엄마 유명한 애니메이터 창돌이 캐릭터 발표 전에 찍은 사진.

1. **교무실 옥상 (해질녘)**

교무실 건물에서 나오는 이나 소영 강현.... 아름답게 비춘 석양이 이들에게 실루엣을 만든다.

이나 : 명효야 어딨니...

소영 : 걱정이다. 정말.... 혹시 누구 담배가진 사람 있니? 괜찮으니까 하나 줘봐

강현 소영에게 담배를 건낸다.

강현 : 그런데 왜 갑자기 문제가 끊긴 거죠?

소영 : 글쎄다 교란시키는 것 일 수도 있고 ...(담배를 뿜으며...) 꼭 소설 같네.

이나 : 왜 이런 일이 저희한테 생긴 걸까요?

소영 : 내가 추리 소설 좀 읽거든 내가 생각 할 땐 원한 인 것 같아 돈을 원했다면 유괴를 했겠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 않으면 즐기는 것이 테고....

그때 어떤 여자 아이 교문 쪽에 들어오는 경찰차를 본다.

지현 : (흥분한 여자아이) 어 경찰이다. 아저씨, 아저씨

여자아이 자켓을 벗어 돌린다. 다른 아이들도 자켓을 벗어 돌린다.

1. **교문 밖 (해질녘)**

순찰차 학교 앞에 차를 대놓고 문방구에 들어가 빵과 우유 등을 산다.

빵을 베어 물며....

경찰1 : 요즘 학교 토요일 날은 쉬지 않나? 쟤들 지금 우리한테 저러는 거야?

경찰2 : 손이나 흔들어 주지 뭐...

저 넘어 에서 뭐라고 아우성을 치는 아이들...

경찰1 :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손을 흔들고 그럴 리는 없잖아

경찰2 : 고등학생들이 그렇지 뭐 별난 놈들 다 모이는 곳이 고등학굔데...

경찰1 : 하긴 ... 야 옛날생각 나네. 가자고 아직 순찰 다 돌려면 한참 걸릴 텐데...

아 이 동네는 길이 지랄이야.

1. **교무실 옥상 (해질녘)**

아이들 경찰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실망한다.

잠시 후 학교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 . 경찰차량 그대로 멈춰서 있다.

이나 주저앉아 울어 버린다.

이나 : 제발 가지 마요 아저씨. 가지 마요. 명효야... 명효 어떡해요.

강현 : 야 아직 명효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나 : 너 모르겠어?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다음 문제의 타켓을 인질로 잡는 거...

1. **교문 밖 차안 (해질녘)**

경찰1 : 아무래도 이상한데 종소리는 왜 울리는 거지?

경찰2 :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 학교는 다 종소리가 자동으로 돼 있어

시간되면 켜지고 시간되면 꺼지고... 타이머 맞추듯이

종소리 꺼지면

경찰2 : 거봐 꺼지잖아 .

붕 ~하고 가버리는 경찰차....

insert8) **해가 넘어간다. 학교에 가로등이 켜진다.**

1. **이나 방 (이후 전체 씬 밤)**

밤이 되자 공포가 증폭된다.

명효, 창돌이 인형과 노트를 꼭 움켜쥐고 있다.

명효 : 우리 불 좀 켜면 안 될까?

수진 : 불 켜면 우리 있는 곳을 들키잖아

명효 : 어차피 입구 잠겼잖아

수진 : 아 좀 조금만 있어봐

은주 : 아~ (짧은 비명)

수진 : 왜 그래

은주 : 이 새끼가 어딜 만져

찬주 : 야... 깜깜하니까 그런 거지. 만지길 어딜 만져

1. **3학년 복도**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창욱.

창욱 : 조심해 다들 손 꽉 잡고 있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창욱과 아이들... 그런데 그때 복도에 팟팟팟 하고 불이 들어오는

3학년 복도 와 교실. 깜짝 놀라는 창욱과 아이들...

1. **학교 교정**

교정에서 불이 켜지는 교실을 보는 이나 강현 소영. 그쪽 방향으로 간다.

소영 : 뛰지 마... 소리 내지 말고 .... 니들 그리고 다 손잡아 현아. 니가 맨 뒤에 서...

밤이니까 더 조심해야 돼.

1. **3학년 복도.**

불이 갑자기 퍽 하고 켜진 상황에 당황한다...

창욱 : 여기에 불 켠 사람 있어? ...

아이들 서로 얼굴만 쳐다본다.

창욱 : (긴장) 복도 스위치는 저쪽에 있잖아...

(혼잣말) 시팔 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

미진 : 아~(비명) 선생님 저기.....

고양이가 쳐다보듯이 사람을 쳐다보는 이상한 얼굴 .온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건지

귀신의 얼굴인지 모를 얼굴 하나가 복도 끝에서 창욱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

입에 침을 바르며 창욱 복도에 붙어있는 소화전 안의 도끼를 아크릴을 부시고 꺼낸다.

이상한 얼굴 갑자기 슥 하고 재빠르게 사라진다. 그곳으로 뛰어가는 창욱.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 긴장된다.

창욱 : 모두 이쪽으로 모여

아이들 우르르 몰려와 한쪽으로 모여 전기 줄의 새들처럼 복도에 일렬로 선다.

갑자기 전기가 퍽 하고 나갔다가 퍽하고 들어오기를 반복 한다.

그러면 복도에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를 반복해서 유리에 보여 지는 형광 물질...

명찬 : 선생님 ... 여기 무슨 글자가 보여요

창욱 : 뭐야

갑자기 껌뻑거리던 불이 아예 꺼져 버리는 복도.

1. **학교 교정.**

야외 교정에서 바라본 교실 쪽 광경.

또다시 훌쩍 거리며 울고 있는 여자아이

소영 : 야 너 울지 마...

지향 : 더는 못 가겠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이나 : 야 좀 힘내자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1. **이나 방.**

아이들 숨죽이고 있다.

은주 : 수진아 우린 안전 하겠지?

수진 : 당연하지 우린 안전 할 꺼야. 조금만 참으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그때 기숙사 문을 긁는 소리가 슥... 슥....

명효 :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수진 : 야 아무도 들어온 사람 없잖아 여기...

찬주 : 방문을 다 열어본 건 아니잖아... 사람이 있었던 거야

문에서 나는 소리 쿵. 쿵. 쿵. 쿵.

문 가운데 나무가 점점 부서져 가운데가 돌출되기 시작한다.

남학생 불을 켠다.

1. **학교 교정.**

강현, 교실 쪽으로 거의 다 와 가는데 불이 켜진 걸 직감한다.

강현 : 선생님...

소영 고개를 돌리고 이나도 고개를 돌린다. 기숙사에 불이 켜진 걸 발견한다.

소영 : 저건 또 뭐야

이나 : 저기 내 방인데 ... 명효 저기 있나 봐요.

갑자기 깨지는 창문 그리고 세어 나오는 소리

아이들의 비명 소리다.

창 문틈으로 명효의 얼굴을 발견하는 이나.

이나 : 명효야

뛰는 이나 기숙사를 향해 뛴다.

강현: 강이나 야~ 저거 진짜... 강이나 같이 가 혼자가지 말고

소영과 일행들 모두 뒤를 따라간다.

잠겨있는 현관문을 큰 돌 맹이를 들어 집어 던져 깨버리고 기숙사 안으로 들어간다.

소영, 사감실 열쇠를 본다. 열쇠가 없다.

1. **이나 방.**

69-A. 이나방 더욱 문을 두드리는 강도가 쎄진다.

아이들 미친 듯 소리치며 아무런 대책도 새우지 못하고 미친 듯이 울고 있다.

구멍이 뚫려버린 문... 그러나 고요하다...

아이들 울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문의 구멍을 쳐다본다. 그때 문 두들기는 소리.

69-B. 이나방 복도 3층철문 이나 와 강현 소영 등이 철문을 두드린다.

69-C. 이나방 아이들 하나둘 구멍을 향해 모여들면 순식간에 맨 앞에 있던 찬주를 잡아끄는

누군가의 손. 구멍에 박혀버린 찬주... 바둥대는 동안 문이 퍽 열리고

깜깜한 갑자기 전기가 나가 버린다. 어둠속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

문으로 나가며 소리 지르는 아이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비명소리

69-D. 이나방 복도 3층철문

소영 : 거기 누구 있으면 문 열어 얘들아 문 열어!

어떤 여자아이(은주) 문을 열면 소영임을 알고 기절해 버린다.

69-E. 이나방 아이들 모두 흩어졌다.

문틈에 끼어있는 찬주를 빼내는 강현.

찬주의 얼굴이 찢겨있다.

찬주 : 어~ (울음...) 끔찍한 얼굴을 봤어...

소영 : 야 흩어지지 말고 이리와 말 안 들을래? 어서 모이지 못해!

아이들 소영 쪽으로 모인다.

이나 : 명효야... 명효야...

소영 : 또 없어진 애 없어?

은주 : (울며... ) 수진이가 없어요...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명효 침상과 침상 틈에 끼어 울고 있다.

이나 : 명효야

명효를 안는 이나 명효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명효...

명효 : 미안해 이나야 미안해...

이나 : 얼마나 걱정한줄 알어?

얼굴을 비비는 소영... 주저앉아 버린다.

소영 : (절망...) 수진아 ~

강현 : 등수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 아 씨 뭐야....

소영 : 정말 모르겠다..

강현 : 선생님 문제를 풀러 가야돼요 어서요....

소영 : 수진 이는 어떡하고 .... 우리는 수진 이를 찾아야 돼.

기숙사를 벗어나지 않았을 거야...

찬주 : 근데요 선생님... 저 그게 사람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소영 : 그럼 귀신이라는 거야 뭐야?

찬주 : 믿지 않으시겠지만 (말을 하면서도 공포에 떠는 남자아이)

제가 본 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소영 : (남자아이 뺨을 때리고...) 야 임마! 정신 차려 너 지금 여기 있는 애들 그렇잖아도

무서워하는데 헛소리 할 꺼야? 귀신같은 거 없어

찬주 : 그게 아니구요 조범이가 본 다는 거 무시했는데 제가 비슷한 걸 본거 같아요.. 정말 이예요 선생님

여길 나가야 해요...

화장실 쪽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

세면장 샤워실로 끌려들어가는 수진의 발이 살짝 보인다.

1. **3학년 복도**

불이 꺼지자 복도의 긴 창문에 형광 물체로 써 있는 이상한 문자.

창문 각칸에 한자씩 적혀있는 숫자와 알파벳 그리고 문자

세 번째 문제.

다음의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하여 문장을 만든 후 복도 오른쪽 창문 한 칸에 한자씩

글자를 채워 넣으시오.

**H 3 H 9 T O 3**

**A P 6 B A 3 J**

**O 9 9 @ 3 O G**

**3 O O 9 @ 1 O**

**3 @ O 3 9**

문제를 고민하는 창욱.

교실 칠판에서 행렬 공식이라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 ..

창욱 : 아 시발... 모르겠다.

자신의 무기력함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그때 복도의 모니터가 켜지고 화면이 서서히 밝아온다.

화면의 볼륨을 올리는 창욱.....

나와서 모니터를 보는 아이들....

화면 바로 앞에 보이는 스탑 워치가 크게 보인다.

이미 5분여 시간 밖에 남아있지 않다.

**화면 안)**

스탑 워치가 화면 앞에 있다가 뒤로 빠지면 스탑 워치가 작아지고

스탑 워치를 입에 물리는 어떤 하얀 손...

위에서 뭔가가 계속 떨어져 굳는 것이 보인다.

촛농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다.

코와 입 등을 서서히 막아가는 촛농...

괴로워하고 있는 재욱

문제와 화면을 번갈아 가며 보는 창욱...

손에 땀이 난다.

그때 안에서 미진이 뛰어나온다.

미진 : 선생님...이거...

혜영의 핸드폰을 보여주는 여학생.

창욱 : 이게 왜?

미진 : 이거 예전에 유행 하던 건데 핸드폰 암호 같아서요..

창욱 : 그게 뭔데?

미진 : 선생님 핸드폰 있으시죠 . 잠깐만 주세요.

모토로라와 애니콜을 들고 있는 여자아이 그 두 개의 핸드폰을 번갈아 보며...

미진 : 이게 애니콜이랑 싸이언 이랑 모토로라가 다 다르거든요.

영어나 숫자로 한글을 치는 거예요

이 두 개중에 있어야 되는데

아 모토로라 같아요 아 근데 눌러 볼 수가 없어서...

뭐라고 쓴지 알수가 있나...

창욱 : 그럼 칠판에 적어 보자.

니 네 중에 모토로라 문자 잘 보내는 사람...

칠판에 적어 보며 한글을 대입해 보는 창욱과 아이들...

하나씩 불러 가며....

세 사람 숫자들과 알파벳의 순차대로 문자를 쳐본다.

H=ㄸ / 3=ㅏ / H=ㄸ / 9=ㅡ .............................. (생략)

창욱 :자음은 알파벳 모음은 숫자로 글자를 만들어 놨구나

최종적으로 글씨를 만들어 쓰는 아이

따 뜻 한 봄 날 의 강 당 을 기 억 해

창욱 그 글씨가 만들어 지자 소스라치게 놀란다.

**insert9) 강당 퍽 지나가는 F.B 1CUT**

**강당 연단 아래에 피투성이가 되어 화상으로 인한 쭈글쭈글 해진 얼굴로**

**입 안에는 한 아름의 약을 넣은 흉측한 얼굴....**

밖으로 나와 모니터를 보는 아이들

입과 눈 등이 이미 촛농으로 굳어 막혀버리고 있는 상황...

입에 박아놓은 스탑 워치에도 촛농이 떨어지기 시작 한다.

아이들 창문에 한 칸에 한자씩 선생님과 함께 글씨를 쓴다.

따 뜻 한 봄

날 의 강 당

을 기 억 해

화면에서는 이미 스탑 워치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린다.

창욱, 절망적이다.

그때 화면을 바라보던 아이들 모두 비명을 지른다.

창욱도 모니터를 보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모니터 앞으로 빅 클로즈업 되어 쭈글쭈글한 피부가 화면 바로 앞 까지 가까이 다가온다.

화질이 좋지 않아 더욱 끔찍해 보인다.

명찬 : (놀라서) 저거 뭐야?

아이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모두 도망치는 아이들....

창욱, 그때 창문에 서있는 어떤 영혼을 본다. 창욱, 고개를 흔들며 묘한 환각과 환청 등에 시달린다.

주저앉아 쓰러져 버리는 창욱...

창욱 : 으아악~

1. **기숙사 앞 (밤)**

교실 건물 에서 뛰어 올라오는 아이들...

기숙사에서 나오는 아이들 만난다.

소영 : 너희들 어디서 오는 거야?

미진 : 선생님 저희 귀신 봤어요...

소영 : 무슨 소리 하는거야

강현 : 담임선생님은?

아이들.. 모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본다.

강현 : 선생님 모시고 와야지 너희만 온 거야 이 의리 없는 새끼들아...

1. **3학년 복도**

아이들 복도로 가봤더니 창욱 쓰러져 있다. 창욱을 일으켜 세우는 강현.

강현 :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창욱, 눈을 뜬다. 소영 생각을 하다가 ...

소영 : 안되겠다. 일단 좀 쉬자

1. **매점 밖**

매점 창을 깨부수는 강현. 창욱 자꾸 시선이 불안하다.

1. **매점**

먹을 것들을 잔뜩 놓고 음식을 먹는 아이들 삼삼오오 모였다.

창욱과 소영 이나 명효 강현등 같이 앉았다...

어떤 아이들 후레쉬 안에 건전지를 넣는다.

이나 : 재욱이가 죽었다고?

명찬 : 응...

지연 : 이나 너는 좋겠다. 니가 싫어하는 애들이 다 죽어 나가서...

이나 : 입 닥치고 빵이나 먹어라

창욱 : 싸울 거면 그만해...

소영 : 이것들이 이제 기운이 나니까 또 으르렁 대고 있어

강현 : 5월의 찬란한 날 강당을 기억해... 5월의 강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창욱 : 이건 사람 짓이 아니야.

소영 : 선생님까지 왜 그래요 애들 그렇잖아도 심장이 약해져 쓰러질 판에...

지현 : 아니 예요. 국어 선생님 말이 맞아요. 사람이 하는 짓이라면...

소영 : 조용히 못해? 이건 명백한 사람 짓이야...

메시지도 분명하고, 문제라는 형식을 빌리는 것도 정신 이상자들 증상이야

명효, 모기 같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

명효 : 선생님 혹시 정신 이상이라면 조범이 짓 아닐까요?

찬주 : 맞아요 그 새끼... (선생 눈치를 보고) 아니 걔.. 막 지 팔 자해하고

아까 제일먼저 없어진 건 조범 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돌아 가셨 잖아요.

창욱 : 살인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자해를 하지 않아 남을 죽이면서 쾌락을 느끼지...

조범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야.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과는 조금 달라... 뭔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소영 :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건 경계성 장애기 때문에 자신에게 먼저 공격을 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공격을 가하기도 해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창욱 : 그럼 조범이 애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애 착한 애예요 학생을 그렇게 매도하지 마요.

소영 : 매도라니요.. 저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 뿐 이예요.

창욱 : (어렵게 말을 꺼내는 창욱) 선생님도 아시죠? 지원이. 지원이가 보입니다. 내 눈에도......

아이들 모두 일순간 하던 짓을 멈추고, 창욱을 쳐다본다. 소영도 창욱을 쳐다본다.

이나 눈물을 글썽이며 지원을 회상한다. 그리고 명효는 들고 있던 물건을 놓친다.

1. **1학년 3반 교실 (과거) (낮) - 2년 전...1학년 시절**

모의고사 시험 성적표를 나눠주는 교실

창욱 : 최지원, 전교 1등이다. 모두 박수...

혜영과 동혁 뒤 돌아 보며, 눈을 흘긴다. 이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준다.

창욱 : 지원이 대단한데 독학 하나로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는 너 밖에 없을 거다.

1. **과거 지원 방 (과거) (밤)**

한방을 같이 쓰는 세 사람... 조용히 이나가 지원에게 뭐가 막혔는지 물어본다.

지원이 밝게 웃으며 가르쳐 준다. 잠시 후 명효, 컵라면을 끓여온다.

**CUT TO)** 이나와 명효 그리고 지원. 라면도 먹고 장난도 친다.

한 침상에 모여 같이 앨범을 보며 키득대며 웃는 아이들...

**CUT TO)** 이나가 기숙사 방에서 자고 있으면, 옆에 와서 같이 누워

디카로 사진을 찍는 지원. 쾌활한 성격의 지원.

**CUT TO)** 좁은 침상에 같이 누워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는 지원과 이나

이나 : 전액 장학생 이면 기숙사비도 나오는 거야?

지원 : 응 난 집이 좀 그래... 장학금 안 받으면 좀 힘들어서...

이나 : 야 김지원 대단한데... 생긴 거 하고 다르게

지원 : (웃음) 근데 너 저 인형은 뭐야?

이나 : 응 내 동생...

지원 : 동생?

이나 : 우리엄마 캐릭터 디자이너거든... 우리 엄마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캐릭터야

우리 엄마가 이거 발표할 때 애를 낳는 기분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내 동생이 됐지 뭐..

지원 : 엄마 되게 멋있다.

이나 : 우리엄마 진짜 멋있는 여자지... 근데 하늘로 가셨어.

지원 : 미안

이나 : 뭐가 미안해 드라마 대사 같다야 괜찮아 내 동생 있는데 뭐...

윗 침상에서 명효가 두 사람 누워 있는 걸 본다. 질투를 하는 명효.

1. **1학년3반 (과거) (낮)**

영어시간 소영, 지원과 혜영을 두고 영어 베틀을 시킨다.

흥미진진하게 두 사람을 보는 소영.

한참을 열을 내서 하는데 혜영 지원의 물음에 답을 못한다.

지원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는 소영.

소영 : 지원이는 어디 학원 다니니? 아님 유학 갔다 왔어?

지원 : ....

소영 : 발음이랑 어휘선택을 아주 국어처럼 쓰는데

지원 : 전 혼자 공부 했는데요

소영 : 야 너 대단하구나

1. **학교 교정 (과거) (낮)**

따뜻한 기분 좋은 날씨 지원, 교정을 걸어가는데 이나 하드를 가지고 와서

지원에게 건넨다. 명효, 그 옆으로 나란히 선다.

기집 애들의 촐랑거리며 웃는 해맑은 모습.

1. **1학년3반 교실 (과거) (낮)**

중간고사, 시험 보는 이미지 잠깐 지나가고 ....

1. **1학년 복도 게시판 (과거) (낮)**

성적등수가 공개되는 고등학교 복도

혜영이 일등을 하고 동혁이 2등을 했다.

6등으로 밀려버린 지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혜영 슬쩍 웃고, 동혁2등에 그냥 만족한다.

조범은 지원을 쳐다본다.

1. **학교 교정 (과거) (낮)**

이나의 품에 안겨 우는 지원

이나 : 야 영원히 시험이 끝난 것도 아닌데 왜 울어.

이게 정말 전교 6등하고 울고 화날려고 그러네...

지원 : 나 다음 학기에 기숙사 나가야 될지도 몰라

이나 :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해?

1. **과거 지원 방 (과거) (밤)**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데 혼자 고민에 빠져있는 지원...

스탠드를 켜고 일기를 쓰는 지원의 모습.

1. **강당 (과거) (낮)**

비가 오는 학교. 아이들, 강당으로 축제준비를 하러 간다.

그런데 아이들 들어서는 초입에 핏자국을 본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알약을

입에 넣고 얼굴이 끔찍하게 죽어 있는 지원의 모습.

1. **매점 - 현재**

이나 : 진짜 지원이가 문재를 내는 걸까요?

소영 : 너까지 정말 왜 그래? 황선생님이 그냥 착각 하는 거야.

창욱 : (이성을 잃었다 눈물이 범벅된 창욱. 이를 악 문다)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들이 모니터에서 그 모습을 다 봤어.

생각해봐 한쪽에선 문제나 나오고 한쪽에선 아이들을 공격한다는 게 말이 돼?

지원이가 분명해...

소영 : 알았어요 진정해요...

그때 매점 안으로 팟~ 하고 들어오는 후레쉬 불빛 아이들 일제히 놀란다.

수위 아저씨였다.

수위 : 여기서 뭣들 하는 거예요?

소영 : 아저씨? 아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수위 : 이 밖에 연락을 취해 볼 려고 별짓을 다해 봐도 연락이 안돼요.

이 핸드폰도 왜 안 되는가 싶었더니 요 밧데리 연결부위를 누가 죄다

빼놔 버렸 더라구요. 기숙사 창은 누가 이렇게 깨 논거요?

아 교무실에 웬 프린트 소리가 들리던데? 하도 요란해서 무서워서 이쪽으로 막 뛰어 왔어요.

곧 이어 들려오는 종소리 공포에 떠는 아이들...

강현 : 선생님 다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위 : 그래요 제가 남은 애들은 잘 데리고 있을께요

소영 : 그래 그러자 선생님도 좀 쉬세요.

창욱 : 아닙니다. 저도 가겠어요.

후레쉬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들고 가는 소영, 강현, 창욱,

이나도 거침없이 참여를 한다.

강현 : 너도 여기있어

이나 : 이자식이 나를 뭘로 보구..

강현 : 이나야 제발 여기 있어

이나 : (웃음)

이나의 손을 잡는 명효.

명효 : 나도 갈래 너랑 안 떨어 질꺼야... (눈물)

이나 : 뚝~ 이 기집 애야 그렇게 질질 짤거면 여기 있고..

갈 꺼면 울지 마.

명효 눈물을 멈춘다.

이나, 명효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어준다

1. **샤워실 세탁실 연결 (수진의 죽음과정)**

**insert 식의 교차 화면...**

**문제가 시작되면**

물이 쏴 하고 틀어진 샤워실에 온몸이 젖은 수진, 웅크리고 누워있다.

수진의 입에 밀어 넣는 시계... 타이머를 누르는 손.

드르륵... 카터칼을 한 칸씩 미는 손

수진 눈 앞에 대고 카터칼 1학년 2반 김지원 이라고 씌인 칼.

1초에 한 칸씩을 툭툭 끊기는 칼....

카메라 부감으로 빠지면 수진의 사방으로 칼날들이 흩뿌려져 있다,

**시간 5 분이 지나자**

수진의 옷을 몇 가닥 벗기는 검게 죽은 손...

몸에 영어로 된 글씨를 써가며 카터 칼을 박아 넣는다.

**시간 10 분이 지나자**

몸에 박힌 칼조각을 잡아 찟어진다.

수진의 치마 속으로 칼을 넣는 손 사타구니에서부터 허벅지를 따라 종아리까지

긋는 손.... 여린 하얀 살결에 빨갛게 나오는 피...

살의 여린 부분들만을 골라 하나씩 하나씩 그어가는

아킬레스건을 긋는 모습...

괴로워하는 수진.

**시간 15분이 지나자**

세탁에 수진이 갇혀있다.

세탁기의 타임을 맞추는 모습...

행굼 10분 탈수 5분

점점 피가 빠지는 모습... 미친 듯 통을 치며 소리 지르는 수진...

행굼 상태에서 물대신 거의 피가 차 오르고 피 속에서 돌아가는 수진...

행굼이 끝나면 모든 물과 카터칼 조각이 빠진다. 물 빠지는 호수에서는 피가 쭉 하고 빠져 나간다.

어느새 행굼 모드에서 탈수 모드로 전환이 되면

빨리 돌아가는 세탁기 한 방울 남아있는 피까지도 모두 탈수 되어 버린다.

1. **교무실**

교무실 한켠의 인쇄실로 가는 이들.

학교 전경을 찍은 사진이 50pc정도 퍼즐로 만들어져 뒤섞인 그림으로 찍찍 거리며

인쇄되어 나온다. 마치 시험문제 나오듯.....

공포에 떠는 아이들

문제 4.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학교의 건물이 뒤엉켜 퍼즐처럼 나눠지고 그 위에 알파벳 숫자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

위 그림을 잘라 퍼즐을 맞추고, 퍼즐 위에 씌여진 알파벳을 조합하여

비어있는 퍼즐 건물 3층에 쓰시오.

인쇄되어 나오는 퍼즐에는 다음과 같은 알파벳의 나열로 인쇄되어진다.

I h a t e d f e s t I v a l I n M a y

B e c a u s e I m u s t n o d t o c h e a t e r

B e e l I v e s o n g a r d e n y e t

T h e y s a y D o f u n I t I t s t r u e

소영 : 이걸로도 문장이 만들어 지는 것 같은데

이나 : 네 맞아요. 퍼즐을 맞추라고 하는걸 보니까 일종의 아나그램 같은데요?

강현 : 아 머리 아파 이걸 언제 맞추죠?

소영 : 문장을 만들어 읽어 본다.

I hated festival in May.

Because I must nod to cheater.

Bee lives on garden yet.

They say "Do fun it, it's true."

난 5월의 축제가 싫다. 왜냐면 사기꾼에게 인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벌은 아직도 정원에 있고 그들은 즐겨라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다.

이나 :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강현 : 아나 그램이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어요 각 한 줄씩 흩어 놓은 게 되니까요...

이나 : 그렇게 잘 회전하는 머리를 공부하는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강현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뛰어 나간다.

1. **현관 게시판**

학교 학교전경 사진을 사정없이 떼어내는 강현.

이치영 선생의 시체에 자꾸 걸린다.

1. **교무실**

후레쉬 조명이 교무실을 비춘다

명효는 퍼즐을 엉켜 있는 그림들을 확대복사하고

소영은 선을 따라 퍼즐을 자른다.

마음이 급한 이나. 그 전에 이나 와는 다른 무표정하면서 결연한 모습이다.

창욱도 퍼즐을 자른다.

창욱 : 최 선생.... 정말 지원이가 이러는 거라면 ,

지원 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악몽이 끝날까요?

소영 : 죽은 애 한테 뭘 어떻게 해요. 시간 없어요. 얼른 잘라요.

창욱 : .....

소영 : (조용히) 선생님 그거 알아요? 내가 선생님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지

창욱 : ......

**CUT TO**

이나 : 안 되겠어요. 어딘가 이상해요. 실제 사진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영 :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창욱 : (실제 건물 사진과 번갈아 보면서) 아닌데 여기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림을 모두 맞춘 사람들... 아래와 같은 문장이 만들어 지고, 지도에는 기숙사 층이 비어있다.

**D e a t h l a s t f I v e I n M a y**

**D o n o t b e l I v e t e a c h e r**

**F I n d o u t I t ' s t r u e**

I hated festival in May ⟶ Death last five in May

5월의 마지막 5명의 죽음.

Because I must nod to cheater. / Bee live on garden yet ⟶ Do not belive teacher

선생님을 믿지 마라.

Do fun it, it's true ⟶ Find out it's true

진실을 밝혀라.

이나 : (해석하는 이나) 문장이 이상해요...

소영 : 시적인 언어라서 그런 거야 아무튼 기숙사 3층으로 빨리 가자

1. **기숙사. 계단-복도-세탁기**

89-A. 세탁실

한참 계단을 뛰어 올라와 복도를 돌아다니면, 세면장 쪽에서 세탁기 작동이 다 끝난

소리가 들린다. 삐...삐...삐...삐...

세탁실에 도착하는 사람들...

피가 다 빠져 버린 수진의 창백하고 온 몸이 피가 빠져 쭈글쭈글해진 수진의 시체.

경악하는 명효, 모든 사람들 그 끔찍한 살해 장면을 보고 창욱은 더 이상 구토를 참을 수 없다.

모두 절망에 빠져 버린다.

이나 : 어차피 시간 내에는 맞출 수 없는 문제들 이야.

명효 : 포기하면 안 돼 ?

이나 : 포기하면...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와서 포기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때 복도 어디선가 문이 끄윽 닫히는 소리가 난다.

창욱... 혼자 그곳으로 빠져 간다.

이나 : 선생님 가지 마세요.

창욱 : 잠깐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89-B. 어느 방

문을 향해 가보는 창욱... 문을 열어보니 여자 아이 하나가 책상에 앉아있다.

창욱 : 얘야 너 거기서 뭐하니? 어서 나와.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자

아이(지원) : .......

창욱 : 거기 있으면 위험해. 어서 선생님이랑 나가자

아이(지원) : 시험공부 해야 되요.

아이에게 다가가는 창욱.

창욱 : 여기에 있으면 위험해 어서!

아이의 어깨를 짚는데 핏기 없이 쭈글쭈글한 지원이다.

입을 벌리고 기이한 소리를 내는 지원.

지원, 창욱 앞으로 다가온다.

창욱 : 아~ (비명소리)

강현, 놀라서 선생님에게 가본다. 강현, 방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다.

강현 :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말.

창욱 땀을 흘린다. 입이 바싹 말라있는 창욱...

약간 조범의 증상처럼 헛소리를 하고 눈이 뒤집힌다.

사람들 뛰어오고 모두 대책이 없다.

지금까지 울지 않던 이나도 실성한 선생님 때문에 속상한지 눈물을 흘리며 운다.

이나 : 선생님 좀 그만 하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시험 때만 되면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걸 로도 모자란 가요?

얼마나 더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 래...

강현, 이나를 안아준다. 이나 강현의 품에서 더욱 거침없이 운다.

소영 :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선생님 말이 맞는 건가? 정말 무슨 귀신이라도 있는 거야?

모두 마음과 몸이 지쳐버렸다. 극도의 공포가 슬픔에까지 그들을 몰아넣는다.

강현 : 말도 안돼요. 귀신이란 건...

**insert10) 사감실.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CCTV의 영상. 사감실 CCTV 모니터가 툭 하고 켜지면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화면. (아이들의 대화를 보여준다)**

이나 : (눈물을 닦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봐요 선생님... 저는 알아야겠어요.

명효 : 오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나 : 이건 운명이 달린 문제야. 지금은 누가 죽게 될지 아무도 몰라.

명효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시험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는 것처럼...

소영 : 지원이 죽음이 타살이 아니었을까? 진실을 밝히라는 말이 자꾸 걸려

창욱 : 지원이는 자살했어요.

명효 : 맞아요. 사실 지원이 같은 애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강현 : 시체에 해답을 써놨다고 하셨죠?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풀지 못했잖아요.

소영 : 첫 번째 문제는 알지도 못해.....

강현 : 그러니까요 혜영이 시체에 답이 있을 거 아니냐구요.

소영 : 시체를 어디서 찾아....

사람들 생각에 잠긴다..

이나 : 현아 너 그거 어떻게 한거야?

강현 : 어? 뭐?

이나 : 그 왜 예전에 아침 조회시간에 갑자기 음악 터져 나오게 하던 거....

강현 : 아 그거? 연결선을 빼서 스위치에 타이머를 연결하면,

마이크로 연결된 회선이 내 mp3로 전환 되는 건데 간단한 장치로 되는 거야...

이나 : 같은 방법 아닐까? 혜영이 시체를 우리가 티비로 볼 수 있었던 거

소영 : 아~ 일단 방송실로 가보자

(창욱에게...) 괜찮겠어요?

창욱 : 네 괜찮아요...

소영 : 먼저 아이들한테 가보죠. 사고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 몇 시야?

기숙사 복도의 시계 새벽 4시를 향한다.

**cut to**

89-C. 사감실 앞

일행들... 기숙사 사감실 앞을 지나가는데 CCTV가 꺼진다.

1. **매점**

수위 아저씨 매점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이들은 매점에 박스 등을 펴 놓고 모두 잠들어 있다.

소영 : 아저씨 여기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수위 : 이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시게를 본다) 이이구 이거 (기지개를 편다)

창욱 안에 들어가 아이들의 숫자를 세어본다. 몹시 피곤해 보이는 창욱.

창욱의 뒤쪽으로 보이는 얼굴이 일그러진 기괴한 얼굴이 슥 나타났다 사라진다.

창욱 : 숫자는 맞네요. (수위에게 깍듯하게...)

조금 피곤 하셔도 오늘만큼은 좀 잘 부탁 드릴께요.

수위 : 아이구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나저나 또 어딜 가실 라고 그래요. 그냥 여기 다 모여 있지...

창욱 : 알아봐야 될게 있어서요.

이나 : 명효야 넌 여기 남아 그래도 여긴 좀 안전 한 거 같으니까

명효 : 싫어 너랑 같이 있을 래

소영 : 명효, 그냥 여기 있어.

강현 : 이나야 너도 명효랑 여기 있어

이나 : 난 괜찮아

창욱 : 그래 이나 남고 차라리 남자아이 한명을 데려가자

소영 : 남자애들 보다 이나 하나가 훨씬 낳아요. 문제도 풀려면 똑똑한 애 하나 있어야 돼구...

창욱 : 하긴 이나가 또랑또랑 하지 .... 가자

수위 : 아니 어딜 가는지 얘기를 해야 내가 뭔 일 생기면 달려가지...

강현 : 방송실에서 다른 대로 연결된 선이 있나 찾아보려 구요...

명효를 두고 가는 4명, 밤에 필요한 랜턴등을 챙겨서 매점을 빠져 나간다.

명효가 걱정스러운지 자꾸 명효를 돌아보는 이나.

1. **방송실**

깜깜한 방송실. 모니터 하나만 삐소리를 내며 켜져있다.

엄청나게 복잡한 회선들 그중 모니터와 연결된 선을 찾아내는 강현.

강현 : 이걸 시작으로 전 학교에 라인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선을 따라 가보면 화면 분할기 같은 게

있을 꺼예요. 그런 거 해 보셨죠. 케이블 티비를 플러치 시키는 거

불안해하는 창욱.

이나 : 굼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넌 언제 이런 걸 배웠냐?

강현 : 음악 장비를 다루면 다 알게 돼 있어.

선을 따라 가보면 벽에 묻혀있는 선. 선을 힘껏 잡아당기면, 우두두 부서지는 콘크리트 그런데 벽 속으로 단단히 들어가 있는 선. 다섯 명이 붙어 선을 잡아당기는데 끊어져 버리는 선.

강현 : 선 방향이 아래로 향해있어요. 아래층에 뭐가 있지? 전기실로 연결되나?

insert11) 계단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강현과 일행.

1. **전기실**

복잡한 전기실을 뒤지는 강현과 일행들... 강현 저 구석에 케이블 하나를 발견한다.

선을 계속 따라가 보니 화면 분할기가 있고 각 반으로 연결하는 케이블이 연결되어있다.

케이블 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어떤 지점에 한 가닥의 케이블이 벽 구멍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인다. 감쪽같이 위장해 놓은 선들...

구멍 사이를 파내서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강현. 안에 작은 또 다른 공간이 있다.

강현 : 이거예요 야 아주 감쪽같은데요?

그쪽을 쳐다보는 창욱.

강현 : 이 케이블이 전체 학교의 케이블 라인을 다 통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학교는 방송실 에서 강당과 교실 전체 A/V를 관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소리도 저기 어디선가 내고 있는 걸 꺼 예요.

선을 따라가 보면 뭔가 해답이 보이겠죠.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나 : 그럼 벽을 뚫어야 되는 건가?

연장통을 뒤지는 강현. 망치와 벽을 뚫을 만한 도구들을 가지고 온다.

창욱 : 잠깐....

강현에게 망치를 뺏어서 쳐 본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는데 고압전류선이 흐르고 있다.

쇠붙이를 하나 던져 보는 창욱. 스파크가 튄다.

창욱 : 고압 전류선이 있어..

전압 통제함을 열어보면 수많은 스위치들이 보인다.

무엇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이나 : 선생님, 다 내려 버려요... 시간도 없고 언제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는데...

창욱 : 아니야 찾았어 큰 스위치를 내리는 창욱.

insert12) **교내 가로등이 한 줄이 꺼진다.**

창욱, 쇠붙이를 다시 던지면 스파크가 튀지 않는다.

망치 등을 이용해 벽을 부수는 사람들 그러나 꿈쩍도 안한다.

강현, 뒤에 보이는 쇠기둥을 본다.

그걸 끌고 오는 강현. 모두 다 같이 쇠기둥을 들고 벽을 향해 치는 사람들......

1. **매점**

수위 아저씨 몰려오는 졸음을 어찌할 수 없다.

명효, 다른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아이들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동도 없이 자는 아이들. 명효 무섭다.

1. **전기실 에서 큰 하수구 통로까지...**

벽을 뚫은 사람들...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 쓰지 않는 공간이 있었던 것.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행들... 그러면 곧 하수구로 연결 된다.

그 안을 들어가는 사람들...

소리가 울려 긴장감이 흐른다.

1. **매점**

여자아이를 흔들어서 깨우는 명효.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혹시 죽었나 해서 손을 코에 가져다 대보는데

숨은 쉰다. 수위 아저씨 고개를 꾸벅꾸벅 흔들고 입을 벌리고 거의 잠들어 있다.

명효의 뒤를 조용히 엄습하는 무서운 얼굴의 여자...

명효 자신의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본다

끔찍한 것이 명효의 눈에 들어온다.

1. **큰 하수구 안**

옆으로도 길처럼 나있는 통로가 있다. 연결된 케이블을 따라 가보는 사람들...

얼마나 갔을까...

잠시 후 이나 촉감이 이상하다. 바닥으로 비춰보면

쥐 몇 마리가 죽은 고양이를 뜯어먹고 있다

이나, 소영 : 아~ 아~ (비명)

강현 들고 있던 꼬챙이로 고양이를 치운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나와 소영, 라인이 조그만 배수로로 연결 되어있다.

소영 : 이거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창욱 : 여기까지 왔는데 돌 아 갈수는 없잖아요. 강현이 앞장서라

강현 : 네, 선생님

1. **작은 배수로 안**

사람 하나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배수로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 찝찝하다.

한 명씩 한 명씩 배수로를 타고 가는데

맨 뒤에 오던 창욱.. 소영의 뒤를 비추는데

약간 경사진 면을 올라가자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창욱 공포감이 밀려온다. 잠시 멈짓하는 창욱... 심장이 뛰어 도저히 못가겠다.

그러나 용기내어 기어 올라가는 창욱. 그때 창욱 앞으로 후두둑 나오는 지원의 영

창욱 소리를 지른다. 바로 앞에 있던 소영 고개를 돌리면 창욱

앞에 보이는 소영...

소영 : 선생님 괜찮아요?

창욱 : (거친숨을 몰아세우며...) 네 ...

1. **매점**

명효, 목이 뭔가에 짓눌려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명효의 시선으로 보이는 잠자고 있는 수위 아저씨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아저씨는 잠만 자고 있다.

명효 앞으로 삐죽히 나오는 기분 나쁜 시선...

명효 빠른 속도로 아래로 낚아채듯 프레임 아웃된다.

1. **강당아래 공사 중 공간**

배수로를 따라 거슬러 온 격이 되는 구조.

나와 보면 강당 아래의 공사 중 이었던 흙더미의 공간이다.

오르막을 오르면 보이는 강당 아래 공사 중인 지하.

강현. 선두에 선다. 강현, 선을 따라 가보면 흙에 덮 히는 선...

선을 들어 올리면 흙속에서 후두둑 튀어 나오는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

음산한 공기가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그때 저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와 뭔가를 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선두의 강현. 멈짓 한다.

강현 : 거... 거기 누구야

줄을 힘껏 들어 올린다. 흙을 튀며 땅위로 올라오는 케이블

강현과 일행들 서서히 후레쉬를 비춰보면 저 안쪽 구석 배수로 입구에

보이는 사람의 형체

더욱 가까이 가보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비춰보면, 혜영의 시체 온몸이 젖은 채 끔찍하게 앉아있는 혜영...

그 뒤에서 나타나는 어떤 남자아이.... 조범 이다. 수척한 얼굴로 공사장에 널브러진

길 다란 쇠를 날카롭게 갈고 있었던 조범, 잔뜩 공포에 질린 얼굴로

강현을 바라보고 있다.

조범의 시야에서 보이는 이나의 얼굴 뒤로 지원의 얼굴이 슥~하고 나타난다.

조범, 일행들에게 다가온다.

소영 : 범아 그거 놔 어서

조범 : (뭐라고 짓거리는 소리)...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를...

조범의 시야에 보이는 이나와 지원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조범 순식간에 이나 에게 달려든다.

조범이 휘두르는 날카로운 쇠를 이나 밀어내고 강현이 대신 찔린다.

조범 이성을 잃고, 강현을 수십 번을 마구 찔러댄다.

입에서 피를 토하는 강현, 온몸에서 피가 세어 나온다.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조범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조범, 여전히 이나를 향한다. 이나 미칠 듯 소리치며 도망간다.

조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이나의 손을 잡는다. 이나의 팔을 찍는 조범.

꼬챙이가 비켜가 상처가 나는 이나의 팔.

이나 소리를 지른다. 조범, 이나를 향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쇠창으로 찌르려고 하면

시멘트 기둥에 박혀 가까스로 피하고 다시 조범, 이나를 잡고 쇠꼬챙이로 찌르려고 할 때

뒤에서 커다란 돌로 조범의 머리통을 찍는 창욱...

조범의 머리통을 여러번 찍어 조범의 머리가 땅 속에 박힌다.

창욱,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아 운다.

소영... 정신이 없다. 머리를 감싸 안고 주저 앉아버린다.

이나의 손을 놓는 조범...

이나 강현에게 달려가 강현을 안는다.

강현 마지막 남은 의식을 다하여 이나의 뺨을 만진다.

강현의 피로 물드는 이나의 뺨.

강현의 깊이 눈물이 베인 슬픈 눈.

이나 : 현아 정신 차려 봐 정신 좀 차려봐 이 자식아

안타깝게 바라보는 소영과 창욱... 힘없이 손을 떨 구 는 강현.

이나 강현을 안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

말이 안 나온다.

이나 : 현아 ... 미안해 ... 미안해 현아....

그때 건물에 난 구멍 을 통해 울리는 종소리 ‘띠리리리 리리 리리리~’

그리고 곧 명효의 비명소리...

명효 : (소리) 아~ 아~ 이나야 .... 선생님... 살려줘요. 살려줘요 선생님....제발

이나 : (잠시 넋을 잃었다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아~!!!!!!!!!! 아~

소영 : 이나야 이제 그만... 명효가 저기 있잖아 그만하고 가자...

싸늘하게 죽어있는 강현의 시체를 두고 가는 이나 ...

혜영의 몸에 그려져 있는 곰돌이 모양의 그래프 (원형 방정식)

1. **밀실**

처음 혜영이가 갇혀 있던 비디오 속의 그 밀실이다.

대충 발라놓은 콘크리트 벽에 습한 공간 바로 눈앞에 명효는 다리 하나가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있고,

쇠사슬은 천정의 도르레에 연결되어 거꾸로 매달려 있다.

양쪽 손은, 양 옆으로 벌린 채 묶여있어 손을 이용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 때문에 조형물처럼 보이는 명효. 미칠 듯 소리를 지른다.

1. **보일러 통로 구**

구멍은 다름 아닌 보일러 관들로 연결되는 통로....

점점 가까이 들리는 명효의 소리

가다가 옆으로 난 문이 있어 열어보는 창욱....

건물의 계단이 나온다.

창욱 : 각 건물에 다 연결된 보일러 통로구야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소영 : 이나야 힘들면 여기서 좀 쉬어

이나 : (여전히 울먹이며...) 아니예요. 괜찮아요

좁은 공간, 이나를 안아주는 소영....

창욱 : 여기 잠깐 이나 하고 있어요. 제가 가 볼께요...

창욱 가다보니 철문으로 닫혀있다.

철문으로 달려있는 비밀번호 식 자물쇠. (일반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문은 매우 낡았으나 자물쇠는 이제 막 달아놓은 듯한 느낌이다.

그때 버려진 TV가 치지직하며 갑자기 켜진다. 닫혀있는 문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

1. **밀실**

명효, 미친 듯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수조 때문에 소리가 밖으로 퍼지진 않고

안에서 맴돌아 웅웅 거리기만 한다.

명효의 머리 와 가슴부분 까지는 수조 속에 들어가 있다.

수조 양쪽 끝에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다.

갑자기 물이 수조 속으로 점점 차 올라온다. 콸콸 쏟아지는 물.

1. **보일러 통로구**

문제를 향해 다시 돌아가는 창욱.

문제를 향해 모이는 세 사람....

문제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DONALD (a)** 라는 청년과 영국의 **GERALD (b)** 라는 청년은 동성애자 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여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경우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라가지만,

두 사람은 똑같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친 것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을 합치면 **‘ROBERT’(c)** 가 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알파벳 D 는 5 라고 가정하고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를 대입하면 ROBERT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두 부부의 이름을 ROBERT 라고 불렀다.

위 문장을 읽고 문에 적힌 공식이 성립 된다고 했을 때 숫자로 풀이하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시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문제를 읽어 내려가는 소영.

**insert13) 콸콸 쏟아져 물이 차오르는 명효.**

**insert14) 지원이 노트에 이 문제를 붙이는 cut**

빨라지는 Cut 전개...

문제를 총력을 다해 푸는 이나, 창욱, 소영....

창욱과 이나 소영 서로 의견을 내며 문제를 푼다.

먼저 공식을 써보는 창욱.

DONALD

+ GERALD

--------------

ROBERT

창욱 : D=5 라고 했고 0~9 까지의 수라고 했으니까 D + D= T = 0 T는 0이네

이나 : 여기요 두 번째 O + E = O 니까 뒤에서 1을 받아와야 하니까

똑같은 결과를 내려면 9가 들어가야 해요. E 는 9

그러면 D=5 T=0 E=9

소영 : A+A는 뒤에서 1을 받을 테니까 A는 4가 되는 것이겠네요.

창욱 : 5+G는 10을 넘지 않아야 하니까 G는 뒤에서 1을 받을 것이므로 1,2,3 중에 하나

이나 : 5+ G 는 L+L 같은 수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게, 함정 같은 숫자가 나오려면

1,2,3중 1부터 대입을 해보면 1을 대입하면 5+G = 6에 1이 더 올라 갈 테니 7

2를 8

3을 9

일단 9는 아니고 (E가 9이므로 ) 8은 뒤에서 1이 더해지는 것이니까 짝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R은 7이고 G는 1 L+L=7이 나오려면 3+3 아니면 8+8이 나와야 하는데 A에 1이 더해져서 나온 숫자니까 L=8이 되어야 한다.

5 O N 4 8 5

1 9 7 4 8 5

-----------------

7 O B 9 7 0

남은 숫자는 2,3,6 만 남게된다.

그런데 N+7은 10을 넘겨야 한다.

그러면 남은 숫자에서 N은 6밖에 없다.

그럼 B는 3이 되는 거고

O는 2가 되는 것이다.

결국 526485 + 197485 = **723970** 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 문제는 문제 푸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된다.**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님....**

1. **밀실**

104-A. 밀실

비밀번호 723970을 누르고 들어간 세 사람.

이미 명효의 얼굴은 물에 잠겨 괴로워하는 명효.

창욱의 시야에 들어오는 가득 쌓여있는 학원 홍보용 전단지들 (앞 씬에 나왔던....)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둔탁한 물건을 집어 유리를 깨는 창욱과 이나 그러나 유리가 깨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힘껏 유리를 깨는 이나. 그러자 물이 빠지며 겨우 명효가 살았다.

그러나 아직 공중에 매달린 상태.

명효 : (물을 먹어 켁켁거리며) 컥~!!컥~!!!!!!! 으아아아아악~~!!!

이나 : (명효의 얼굴을 잡고 안정을 시킨다) 명효야 괜찮아?

도르레를 따라 가보는 소영.

어떤 구멍 속으로 연결된 도르레의 줄.

명효를 붙잡고 안정을 시키는 이나, 너무나 겁에 질려 충격을 받은 명효.

명효, 창욱과 이나를 보고 이제야 겨우 안정을 찾는다..

명효 : 현이는?

이나 : ...........

창욱. 묶여있는 명효의 팔을 풀어내고 다리를 풀려고 하는데 너무 높아 키가 닿지 않는다.

주변 도구를 이용해 올라가려고 물건을 찾아보는 창욱 과 이나.

소영, 전단지를 하나 주어 살핀다. 첫 번째 문제가 전단지 안에 씌여있다.

소영 : (혼잣말로) 전단지 나눠주던 아줌마 였구나....

문제1. 다음 수식을 풀고 그래프를 완성하여 연상되는 그림을 학교 게시판에 그리시오.

(X-1)² + (Y-5)² = 36

(X-5)² + (Y-10)²= 4

(X+3)² + (Y-10)²= 4

(X-1)² + (Y-5)²= 2

작은 글씨로... **#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명씩 죽는다.**

소영 구멍 속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 구멍 속은 깜깜하다.

그리고 어떤 기분 나쁜 숨소리와 울음소리 같은 소리만 흘러나온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쾅 하고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얼굴...

소영 ,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진다.

동시에 갑자기 위로 ‘철컹’ 하고 위로 높이 올라가는 명효... 소리 지르는 명효...

명효 : 악~ 아아아아아아

이나 : 제발 내려주세요.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자꾸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창욱 : 내려줘.... 내려 주란 말이야!!

갑자기 명효를 쾅하고 놔 버리는 구멍속의 무시무시한 얼굴의 여자

그대로 땅에 떨어져 즉사해 버리는 명효... 명효의 묶여있는 다리에 꼽혀있는 지원의 노트조각.

노트의 조각들이 다리 사이사이에 껴있다.

이나 : 명효야 ~ 명효야 (분노) 약속대로 문제를 풀 었 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왜

소리 : (듣기능력 시험에서 나왔던 고운 소리) 내가 말 했을 텐데

진짜 문제는 왜 이 문제를 내고 있는지 맞추는 것이라고....

이나 : 지원이가 자살해서?

소리 : 땡~

이나 : 지원이가 억울하게 죽기라도 했어요?

소리 : 땡 ~ 하지만 비슷했어.

이나 : 당신 누구야

소리 : 나? 너도 잘 아는 사람...

창욱, 가픈 숨을 몰아쉬다 입구 쪽을 응시한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를 바라본다. 비디오카메라로 이쪽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카메라를 부셔 버리는 창욱.

밀실 안 구멍속의 모니터가 툭 ~ 꺼진다.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 구멍 쪽으로 조심히 발길을 옮기는

창욱과 소영 그리고 이나.

창욱,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쇠파이프를 들고 구멍 가까이로 접근한다.

구멍 속에는 노이즈만 끊는 모니터가 보인다.

104-B. 밀실 구멍

창욱 구멍 안으로 들어간다.

갑자기 창욱의 목이 감겨 잡아끄는 개잡을 때 쓰는 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구멍 안, 넓지 않은 공간. 두려움에 떠는 소영과 이나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두려워 한다.

창욱의 목을 조여 오는 얼굴이 쭈글쭈글한 여자.

창욱의 목을 묶어 한쪽에 걸어 놓는다. 목이 조여 있는 상태. 목에서는 피가 흐른다. 움직일 수 없다.

그때 소영과 이나 용기 내어 들어가 복면 쓴 여자의 뒷통수를 벽돌로 내리친다.

창욱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소영과 이나... 거의 다다랐을 때쯤,

뒤에서 벌떡 일어나는 복면. 소영과 이나의 뒷덜미를 잡는다.

몸싸움을 하는 소영과 이나 그러나 복면의 여자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소영과 이나를 공격한다.

이나와 소영을 코너에 몰아넣고 길 다란 봉으로 두 사람을 짓누르면, 둘 다 봉에 목이 짓눌려

괴로워 한다.

창욱, 옆에 난간에 걸쳐 있는 지원이의 필통을 본다. 필통을 겨우겨우 집는가 싶었는데...

필통이 밑으로 와르르 쏟아져 버린다.

소영과 이나 녹슬고 길쭉한 철조 물을 들어 창욱을 조이고 있는 괴기스런 여자의 뒤를 힘껏 찌른다.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쓰러지는 복면 녀....

이나, 얼굴을 이제야 재대로 보고... 충격적으로 놀란다.

이나 : 이분은 ..... (울음) 지원이 엄마....

전단지 여 : (광적이면서도 슬픈 눈) 우리 딸.. 우리 딸 ....

이나 : 아줌마가 왜 우리한테 ....

전단지 여 : 우리 딸은 애들 때문에 죽었어... 애들....

창 욱 : ........

앞으로 쓰러지면 땅에 꼬챙이가 닿고 지원의 엄마(전단지 여)는 비스듬히 서있는 꼴이 된다.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지원의 엄마.. 눈을 뜨고 있다.

이나, 지원의 엄마 눈을 감겨준다.

소영 : 이제 다 끝났어 가자...

입구로 돌아가는 세 사람....

서서히 암전되는 화면.....

1. **대강당 (낮)**

화면 서서히 밝아오면...

추도식이 열린 학교의 대강당. 전교생이 모여 있는 학교....

단 위로 치영, 혜영, 동혁, 명효, 재욱, 조범 ,수진, 강현 의 사진이 일렬로 나열 되 있고,

엄마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고 있다. 이나, 강현과 명효의 사진을 쳐다본다.

학생 중 한명이 앞에 서서 추도문을 읽자 더욱 슬픔에 오열하는 엄마 아빠들...

추도문 읽는 학생 :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아 같이 웃던 우리의 모습도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맑고 아름다웠던 너희들의 눈망울이 이젠 기억 저편에서 추억으로 자리할 걸 생각하면...

.

.

.

(중략)

넋을 잃어버린 고인의 가족들...

이나, 밖으로 나온다.

1. **학교 교정 (낮)**

이나 나와서 계단에 앉는다. 눈물이 주르륵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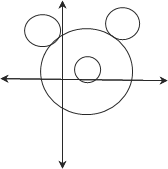
그때 바람에 나풀거리는 홍보용 전단지 하나가 보인다.

이나 전단지를 집어서 본다.

“은별 학원”“ 지금부터 시험이 시작된다” “ 최고의 강사진이 던지는 수능 타파”

그리고 작은 이중으로 겹쳐 보이는 수학 문제.

문제1. 다음 수식을 풀고 그래프를 완성하여 연상되는 그림을 학교 게시판에 그리시오.



(X-1)² + (Y-5)² = 36

(X-5)² + (Y-10)²= 4

(X+3)² + (Y-10)²= 4

(X-1)² + (Y-5)²= 2

누군가 풀어놓은 문제.

수식을 풀고 완성된 그래프, 곰돌이 모양을 하고 있다.

이나 : 도대체 뭘 얘기 하고 싶었던 걸까?

생각에 잠기는 이나 뭔가 깨달은 듯....

1. **대강당 (낮)**

엄숙한 분위기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계속해서 장문의 추도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 학생.

그때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일제히 조용해진 강당 분위기.... 하울링 소리 들리며

잠시 후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

목소리 :

어떻습니까? 자식을 잃어 보니까 가슴이 아프지요?

저도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2년간 살아왔습니다.

저는...... 김지원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강당.

목소리 :

지금 강당은 다 잠겨 있습니다.

외부에 전화하는 순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순간을 위해 2년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insert15) 강당 문을 안에서 잠그는 모습. (손모양만 보인다)**

**다시 이중으로 된 다음 문은 밖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잠근다.**

사람들 이중문 중 안쪽 문을 열어 보려고 하지만 열수가 없다.

조용히 숨죽이는 사람들....

네 그겁니다. 시험시간엔 떠드는 게 아니죠...

그럼 마지막 시험문제를 내겠습니다.

갑자기 커튼이 자동으로 닫힌다. 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리고 강당 정면에 있는 스크린이 내려온다.

초조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기도하는 사람들...

잠시 후 켜지는 화면....

지원이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하나하나 보여 진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 디카로 찍은 지원이의 일기장... 선생님들과 찍은 사진도 보인다.

계속해서 나가는 화면 속 지원의 모습...

목소리

우리 지원이는 제가 입학선물로 사 준 카메라로 친구들도 찍고, 선생님들도 찍고....

충격적으로 영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각각의 표정들이 화면 안에 잡힌다.

그런데 갑자기 동영상 하나가 툭 튀어 나온다.

어느 틈 에서 찍힌 동영상. 곰 인형 탈을 쓴 어떤 사람이 강당 지하 공사장에서

지원 이를 죽이고 있는 영상.

스크린의 영상이 실사영상으로 바뀌며 그때 그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 사연이 궁금하시죠?

1. **몽타주 (과거)**

**108 A. 교실 (밤)** .. 지원, 밤까지 혼자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복도를 나온다.

**108 B. 교실복도 (밤)** ..치영과 마주치는 지원 인사를 하면 치영이는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반대편으로 간다.

**108 C. 교정에서 숙직실.. (밤)**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에 건물 하나가 불이 켜 있다 무심코 창문을 보는 지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어떤 선생님의 등이 보이고 학부모들 모여 있다. 다섯 개의 소형 USB를 나눠주는 선생님...

학부모들 그것을 하나씩 받아 쥔다.

학부모들의 얼굴 죽은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들이다.

명효 어머니 에게 돈 봉투를 받는 선생님의 뒷모습...

지원,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놀라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작게 들려오는 소리...

명효엄마: 선생님 고마워요 여기 애들 워낙 뛰어나잖아... 이렇게라도 안하면 불안해서요...

지원 소리를 지를뻔 한다 입을 막는 지원...

**108 D. 학교 교정 (밤)**

선생님의 얼굴은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는다.

지원 : 선생님 시험문제 유출 한 거 다 알아요. 제 성적만 보호받을 수 있으면 공개는 안 할게요.

남들은 성적이 자존심일지 모르지만 전 장학금 못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108 E. 강당아래 길 (낮)**

지원, 강당아래 길 을 가다가 콩크리트 사이에 핀 끈질기게 생명력 있는

예쁜 꽃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그러면 그때 뒤에서 지원이를 낚아채려고 하는

팬더 가면을 쓴 남자. 그러나 지원 가까스로 피한다. 도망치는 지원,

잡히는 지원, 핸드폰을 놓친다. 지원의 목을 낚아채서 조르는 팬더 가면...

조범 그 모습을 목격한다. 지원, 조범과 눈이 마주친다. 그러나 조범 두려움 때문에

지원을 구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

지원의 놓친 핸드폰에 팬더 가면의 모습이 찍힌다. 핸드폰 영상으로 카메라 서서히 들어가면...

이 영상이 그대로 바뀌어 강당의 스크린으로 옮겨진다.

1. **강당 - 현재**

사람들 충격적으로 이 영상을 바라보고,

영상이 다 보여 지면 들려오는 목소리

목소리 :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교정의 꽃이 아름다운 따뜻했던 2년 전.

1학년 3반 20번 김지원 학생을 죽였던 곰 인형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 분은 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 하십시오.

무대의 커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 이나가 매달려 있다.

충격적인 모습....

이를 지켜보는 한 사내의 뒷모습.

모자를 둘러쓴 수위 아저씨다. 뺨에 눈물이 타고 내린다.

희미하게 떨리는 손끝.

단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의 고백을 듣는 것이 이문제의 답입니다.

문제의 시간은, 지금부터 열을 세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점점 조여오는 이나의 목...

목소리

학창시절 반에 물건이 없어지면 모두들 벌을 받으며, 선생님이 범인을 잡던 기억이 나나요?

셋.....

넷....

다섯.......

명심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목이 점점 조여 오고 울고 있는 이나, 겁에 질려 있는 많은 사람들.....

소영 눈을 손으로 가려 버린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일곱.......

창욱, 무대 위로 올라온다. 모두 다시 한 번 충격.

웅성대는 사람들...

창욱 : 죄송합니다.

스르르 풀리는 이나의 로프 이나도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듯 선생님을 쳐다본다.

창욱이 고백을 하면 과거의 상황들이 같이 보여진다.

창욱 : (눈물을 보이기 시작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한다)

저는 사실 두 번째 시험이 출제 되었을 때부터 저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낸 사람을 제가 먼저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목소리 : 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없어서....

강당 위에서 육중한 물체가 떨어져 창욱 을 덮어 버린다. 즉사해 버리는 창욱.

소리 지르는 사람들....

1. **운동장 (낮)**

공포에 질려 학교를 빠져 나가는 아이들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아이들의 모습..... 아비규환 이다.

1. **옥상 (낮)**

옥상 난간을 유유히 걸으며, 모자를 벗으며 눈물 흘리는 수위 아저씨의 고속화면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Flash back.**

1. **과거 몽타주**

빠르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몽타주..

112 A. 지원 집(낮)

지원이와 엄마 , 아빠가 행복했던 시절...

지원의 가족들 식사 중...

아빠가 수위 아저씨 인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안다고 하는데 오히려 아빠는

아이들이 혹시나 지원을 무시할 수 있다며 절대 비밀로 하면서 다니라고 말하는 모습..

112 B. (낮)수위로 일하면서 딸을 남모르게 챙겨주는 모습..

112 C. 핸드폰 안의 동영상을 보는 수위아저씨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눈빛이 변한다.

112 D. 지원 집(낮) 미친 듯 넋을 잃다가 사고를 당해 화상을 입은 아내

112 E. 밀실(밤) 지원의 다이어리를 보고...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들...

insert16) 수위실(밤) 이나 외 네 사람이 문제를 풀 때 CCTV에 잡혀있는 모습을 보다가

순찰 타이머를 들고 나가는 아저씨. (insert10과 연결)

insert17) 매점(밤) 창욱의 일행들 오자 자는 척 하는 경비. (90.#과 연결)

등 모든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영상이 짧게 모아져 보여 진다.

1. **본관 앞 (낮)**

차량 위로 떨어져 버리는 수위 아저씨 요란하게 울리는 차량 경보기 소리....

사람들 아비규환이 되어 학교를 빠져 나간다.

F.O

1. **3학년 4반 교실. (여름 낮) - 시간경과**

하복을 입은 교실의 나른한 수업풍경. 수업을 열심히 듣는 이나...

말수도 적어지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된 이나.

1. **현관 게시판 (여름 낮)**

기말고사 시험 성적표가 걸린 학교의 게시판.

1등 최 이 나

무표정 하게 성적표를 바라보는 이나의 모습.

1. **교실**

텅빈 교실에 모니터에 저절로 켜지는 텔레비전

**물음에 답하시오**

**다 음 4 자 리 의 빈 칸 을 채 우 시 오**

**5 6 8 5 → 2 4 8 5 → □□□□**

엔딩 스크롤.......

**시나리오를 읽어보시는 분들도 풀어 보세요 ^^**

**- The End -**